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김의곤(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임송은(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태연(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 본 연구는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로써
본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원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례

제1장 조사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4
1. 연구대상	4
2. 연구방법 및 내용	6
제2장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및 대전지역 노숙인복지 현황	9
제1절 노숙인	11
1. 노숙인법에서 정의한 노숙인	11
2. 노숙인의 범위	11
3. 노숙인 제도의 변화	12
4.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	14
5. ‘노숙화’의 과정적 측면에서의 관점	14
6. 거리노숙과 거리생활	15
제2절 대전지역의 노숙인과 노숙인복지	16
1. 대전지역의 노숙인 복지	16
2. 대전지역의 노숙인 현황	16
제3절 대전지역 노숙인복지 서비스체계	18
제3장 노숙인의 삶과 코로나19	21
제1절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와 노숙인	23
1. 코로나19 이후 노숙인의 삶의 변화	23
2. 대전지역의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24
제2절 언론에서 다룬 대전지역 노숙인과 코로나19	27
제4장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1
제1절 노숙인 당사자 조사결과	33
1. 거리노숙인	33
2.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38
3. 재활시설 생활자	45
4. 자활시설 생활자	48
5. 자립생활자	54

제2절 노숙인시설 조사결과	59
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59
2. 노숙인일시보호센터	64
3. 노숙인재활시설	69
4. 노숙인자활시설	71
5. 노숙인 급식시설	76
제5장 결론 및 제언	85
제1절 결론	87
1. 대상별 조사 내용 요약	87
2. 시설별 조사 내용 요약	90
제2절 제언	93
1. 방역 지원	93
2.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4
3. 노숙인시설 서비스 개선	95
참고문헌	97
부록: 설문지	99

표/그림 차례

<표 1- 1> 조사대상 노숙인	5
<표 1- 2> 대전지역 노숙인 시설 현황(인가시설)	5
<표 1- 3> 조사대상 노숙인 시설	5
<표 2- 1>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노숙인 등 현황 및 비율	17
<표 2- 2>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노숙인 현황	17
<표 2- 3>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신규노숙인 등록 현황	18
<표 2- 4> 제2차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과제목록(대전광역시)	19
<표 3- 1> 대전광역시 거리노숙인 및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2022년 9월)	26
<표 4- 1> 조사참여자(거리노숙인) 개요	34
<표 4- 2> 조사참여자(거리노숙인)-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35
<표 4- 3> 조사참여자(거리노숙인)-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35
<표 4- 4> 조사참여자(거리노숙인)-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36
<표 4- 5> 조사참여자(일시보호센터) 개요	39
<표 4- 6> 조사참여자(일시보호센터)-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39
<표 4- 7> 조사참여자(일시보호센터)-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40
<표 4- 8> 조사참여자(일시보호센터)-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40
<표 4- 9> 조사참여자(재활시설) 개요	45
<표 4-10> 조사참여자(재활시설)-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45
<표 4-11> 조사참여자(재활시설)-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46
<표 4-12> 조사참여자(재활시설)-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46
<표 4-13> 조사참여자(자활시설) 개요	48
<표 4-14> 조사참여자(자활시설)-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49
<표 4-15> 조사참여자(자활시설)-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49
<표 4-16> 조사참여자(자활시설)-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	50
<표 4-17>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 개요	55
<표 4-18>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56
<표 4-19>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56
<표 4-20>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57
<표 4-21>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업현황	60
<표 4-22>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 감염현황	61
<표 4-23> 대전노숙인일시보호센터 최근 5년간 이용 실인원	64
<표 4-24> 대전노숙인일시보호센터 코로나19 감염현황	67
<표 4-25> 대전노숙인일시보호센터 코로나 검사방법 및 주기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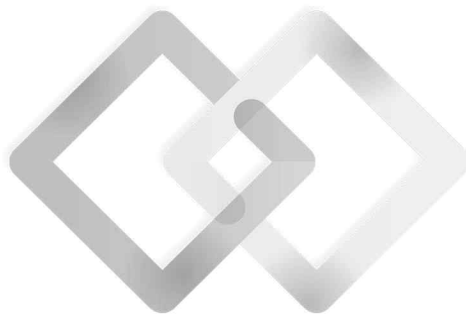
<표 4-26> 노숙인 재활시설 코로나19 감염현황	70
<표 4-27>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자 수(2022년 8월)	72
<표 4-28>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별 서비스 제공의 변화 ...	72
<표 4-29>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 감염 현황	73
<표 4-30>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재난지원금 수령 현황	74
<표 4-31>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별 서비스 제공의 변화 ...	75
<표 4-32>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차원 개선 요구사항	75
<표 4-33>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적 차원 개선 요구사항 ...	75
<표 4-34> 코로나19 이전 대전지역 노숙인 무료급식 현황(2018년 8월)	77
<표 4-35> 코로나19 이후 대전지역 노숙인 무료급식 현황(2020년 9월)	77
<표 4-36> 2022년 9월 대전지역 노숙인 무료급식 현황	78
<표 4-37> 코로나19 전후 평균 급식 인원 변화	79
<표 4-38> 코로나19 전후 급식 내용 및 급식 장소 변화	79
<표 4-39>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시설 종사자의 어려움	82
<표 4-40> 코로나19 관련 급식시설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82
<표 4-41> 코로나19 관련 급식시설별 급식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83
<표 4-42> 코로나19 관련 급식시설별 대전시 노숙인 정책 개선 요구사항	83
 [그림 2- 1] 대전지역 노숙 예방을 위한 서비스 체계	20
[그림 2- 2] 대전지역 노숙인복지 체계	20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제1장 조사개요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무료급식소)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극단의 빈곤을 겪고 있는 집단인 노숙인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이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취약계층이다. 이 계층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다(이태진 외, 2017) 또한 방역 조치 등의 보호가 힘든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의 열악한 환경(집단수용 형태의 시설 구조) 또한 노숙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이전에 발생했던 감염병 상황과는 매우 달랐다. 발생 초기 단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노숙인복지 현장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방역물품의 부족, 열악한 시설 환경, 실무자들의 업무 과중, 감염병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의 미흡 등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노숙인복지 현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상당 부분 문제가 발생하였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급식 및 잠자리 제공 서비스 등 생계 관련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면서 결식 문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잠자리 즉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2020년 11월 이후 코로나 검사 후 대기시간 동안 임시숙소 제공하기 시작), 검사 및 백신 접종·격리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과 생활 시설에서도 시설 내 집단 감염의 문제, 프로그램의 제한, 격리공간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대부분의 노숙인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밀집수용의 구조로 되어 있어 집단 감염의 위험, 적절한 격리공간의 부재, 실무자 위험도의 증가와 업무 과중, 노숙인 시설에 적절한 지침

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나 현재 대부분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노숙인들의 삶의 영역은 그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복지 현장의 혼란과 노숙인복지 활동가들의 어려움은 예상되는 당연함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의 무게중심은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거리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공간적 차원의 인식과 노숙인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노숙인복지 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감염병 관련한 문제는 처음 대두되는 것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의 유행으로 노숙인들의 의식주 등 생계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하지만 굳이 특정한 감염병을 말하지 않더라도 노숙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노숙인들의 결핵 문제는 계속되는 화두이기는 하지만 검사에 대한 지원 외에는 치료를 위한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인터뷰에 응한 한 노숙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전부터 계속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거리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노숙’이라는 상황은 극단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응답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극단적인 노숙인들의 삶(생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대전지역 노숙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주목하여 기록·분석하여 향후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대전지역의 노숙인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자, 노숙인 재활시설 생활자,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자, 자립생활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자 수는 <표1-1>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자립생활자를 포함한 것은 이 대상자들의 경우 종합지원센터의 사

례관리를 받는 대상자들로 코로나19 이후 고시원, 숙박시설, 쪽방, 매입임대주택 등에서 생활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재노숙 위험성이 높은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1> 조사 대상 노숙인

(단위: 개소)

구분	계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노숙인 재활시설 생활자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자	자립생활자
인원	30	4	5	3	12	6

대전지역에 있는 노숙인 시설 중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노숙인일시보호센터(이하 일시보호센터), 노숙인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이하 자활시설), 그리고 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1-2> 대전지역 노숙인시설 현황(인가시설)

(단위: 개소)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개소	9	1	1	4	1	1	1

<표 1-3> 조사대상 노숙인 시설

(단위:개소)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무료급식소
인원	10	1	1	4	1	3

<표 1-3>의 조사대상 노숙인시설 중 무료급식소는 노숙인시설로 인가받은 곳은 아니다. 대전지역에는 노숙인 무료급식소로 인가받은 시설이 없다. 무료급식소 중에 본 연구 조사에 포함된 노숙인 급식시설의 경우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운영 급식소와 인가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급식소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노숙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소로 비교적 안정적인 실내급식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쪽방생활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적으로 쪽방 생활자도 노숙인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쪽방생활자의 경우 주거 및 기타 특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나 쪽방생활자로 볼 수 있는 자립생활자를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대전지역 노숙인 문제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숙인의 삶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사의 범위를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전지역의 노숙인, 자립생활자, 노숙인 시설로 한정하였다.

1) 자료조사

본 연구는 노숙인 복지와 관련한 제도, 선행연구 고찰, 언론자료 등 코로나19 이후 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과 관련한 방역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며, 관공서의 공문 등을 통해 대전지역 노숙인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2) 노숙인 당사자 조사

초기 본 연구에서 노숙인 당사자에 대한 FGI를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예비조사 후 실시한 실무자 간담회 결과 노숙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거나, ‘괜찮다’, ‘별로 없다’ 등의 단답형 대답만을 하는 등 실제적인 FGI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거리노숙인은 노숙하는 장소로 찾아가거나 야간에 방문하여 사전 약속을 한 후 종합지원센터로 주간에 방문하게 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며, 시설 노숙인은 시설로 방문하여 인터뷰했다. 자립생활자의 경우 종합지원센터로 내방 하도록 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유선, 직접 면담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의료 및 건강관리, 코로나19 경험, 정부지원(재난지원금 등), 급식문제, 방역문제, 복지서비스의 문제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질의하였다.

3) 노숙인 시설 조사

노숙인시설은 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과 생활시설(재활시설, 자활시설), 무료급식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무료급식소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대전지역 노숙인 무료급식소는 노숙인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이거나, 노인급식소로 거리노숙인부터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 쪽방생활자, 지역 노인 등 다양하게 이용하는 곳으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급식 제한, 급식 중단, 급 방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숙인들의 생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개방형 조사지를 이메일로 발송 후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실무자가 작성하였으며, 수신받은 답변 중 부족한 답변은 개별 연락을 통해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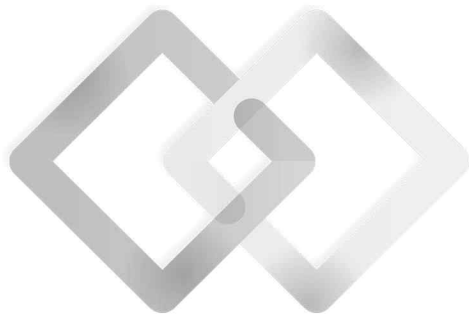
조사의 주요 내용은 노숙인 이용시설 및 재활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변화, 코로나19 관련 현황, 재난지원금 현황, 코로나19 정책 및 지방정부의 대응체계를 질문하였다. 무료급식소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급식서비스 제공의 변화에 집중하여 질문하였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제2장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및
대전지역 노숙인복지 현황**



제2장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및 대전지역 노숙인복지 현황

제1절 노숙인

1. 노숙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에서는 노숙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의 범위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노숙인의 범주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기타 주거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거리노숙인은 적절한 주거지가 없이 거리, 역사·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시설생활자는 이용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생활시설(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쪽방, 고시원, 찜질방, 숙박시설, 기원(대전지역에서 2010년 기원에서 장기 생활하는 대상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노숙인의 삶의 자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다양하다. 대전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노숙인은 거리나 노숙인 시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종합지원센터에 신규로 등록하는 노숙인들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바로는 거리노숙인 대다수는 실제 거리로 나오기 전 일정한 주거 없이 공사장 숙소, 찜질방, 지인의 집 등 다양한 곳에서 지내며 생활했다고 답한다. 이는 준노숙 상태로 간주할 수 있지만, 노숙인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노숙의 개념이 협의적이고, 비주택 거주자인 노숙 위기상황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노숙 위기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의 거리노숙으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리노숙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복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노숙인의 범위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지하도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노숙인으로 보겠지만, 부녀일시보호소나 쉼터에서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타난다. 노숙인이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임시보호시설 등의 숙소를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경우를 노숙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노숙인과 사회복지 실천, 남기철, 2007)

노숙인의 범위를 거주하는 공간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노숙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당한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3. 노숙인 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노숙인에 대한 정책은 부랑인에 대한 단속, 수용 보호로 시작하였다. ‘IMF 사태’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감춰져 있었던 극단적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숙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기존에 부랑인이라고 호칭하던 대상자들에 대해 ‘실직노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후 ‘노숙인’이라는 용어로 통합되었다.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 부랑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2012년 ‘노숙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도 두 용어가 이원적으로 사용되었다. 노숙인쉼터(현 노숙인자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들은 노숙인, 부랑인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들은 부랑인이라고 호칭되었다.

노숙인복지가 시작되던 초기(1997년~2000년 초)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으로 인한 노숙인 문제로 접근을 했고, 노숙인에 대한 용어도 ‘실직노숙인’으로 호칭되었다. 이후 노숙의 원인이 일자리의 상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상실 및 기타 문제들의 복합적 요인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70. 1 :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내무부 훈령 제410호)
- 1981. 10 :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 1987. 4. 6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 1999. 4. 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 부령)
- 2000. 8. 1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정(부령 제165호)
- 2002. 12. 13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
- 2005. 1. 5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부령 제307호)
- 2008. 3. 3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1호)
- 2009. 12. 7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141호)
- 2011. 12. 15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부령 93호)
- 2012. 6. 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0784호)
- 2012. 6. 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대통령령 제23842호)
- 2012. 6. 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부령 제126호)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폐지
- 2016. 2. 3 : 제 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공포
- 2021. 12. 24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보고
- 2022.1~ : 노숙인시설(재활·요양) 운영 지원 사무 지방이양
 - * 「노숙인복지법」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시설

4.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노숙인 중 거리 노숙인은 6.1%(2021년 기준, <표2-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리에서 멈춘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더러운 외모, 대전역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구걸을 하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등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시각으로 인해 노숙인은 더러운 외모, 알코올 중독, 위험한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등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노숙인에 대한 낙인으로,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5. ‘노숙화’의 과정적 측면에서의 관점

본 연구에서는 노숙화의 원인이나, 면접 대상 노숙인의 개별적 노숙의 원인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노숙의 원인 중에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 ‘주거’의 문제이다. 노숙은 주거의 문제와 연관성이 높다. 대부분의 노숙인은 노숙화의 과정에서 주거를 상실한다. 또 노숙인의 대부분은 주거지가 생겼을 때 주거이탈, 재노숙의 비율이 매우 낮아진다. 노숙은 ‘주거상실’이라는 일정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선택되어진 삶의 형태일 뿐이다.

주거지가 없으면 개인의 일상을 넘어서서 국민권이 상실된다. 「주민등록법」 제10조 ①항에서는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의 신고내용 중 7호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다. 즉, 주거지가 없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의식주와 같은 생계의 문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 인권유린 등이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국민권의 제한으로도 확장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주거(주거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은 투표를 할 수 없다. 수급 자격도 제한된다. 취업, 금융기관 거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이 제한된다. ‘주거’ 또는 ‘주거지’라는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배제와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숙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주거 공간의 이동일 뿐이다. 노숙(露宿, Homeless)의 사전적 의미는 ‘한데에서 자는 잠’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숙인(露宿人, Homeless Person)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뼉잠을 자는 사람’이다(네이버 사전). 여기에서 사전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노숙, 그리고 노숙인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 개인의 삶에 주어지는 ‘공간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즉, 주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공간을 벗어난 외부의 장소를 주거로 선택한 또는 사회적으로 선택되어진 대상들이 노숙인이다. 노숙인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노숙을 개인의 문제에 집중한다. 하지만 노숙은 ‘주거’라는 공간을 상실한 대상을 지목하는 것이다. 둘째, ‘시간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개인에게 노숙의 상황은 과거, 혹은 미래의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빈곤화된 상태로서의 현재적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숙화의 ‘과정적 의미’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노숙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극단화된 빈곤의 현재의 형태일 뿐이다. 노숙의 문제는 개인이 겪는 ‘노숙화의 과정적 의미’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6. 거리노숙과 거리생활

흔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전부를 노숙인으로 인식한다. 혹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모두 수급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리노숙’과 ‘거리생활’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노숙인복지법에서도 정의되어 있듯이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간혹 수급자이거나 주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유나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전부를 노숙인으로 규정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거리생활자는 지역사회에서 그 문제를 개입해야 한다.

제2절 대전지역의 노숙인과 노숙인복지

1. 대전지역의 노숙인복지

대전에서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이 IMF사태가 시작되었던 1997년경이었다. 시작은 민간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직자 위주의 상담이나 무료급식으로 시작되어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졌고, 1999년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노숙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 미지원 단체까지 포함하여 노숙인쉼터 7개소(남성쉼터 6개소, 여성쉼터 1개소 - 현재 4개 자활시설 운영),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등이 설치되었고, 2004년에는 노숙인상담보호센터(현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2012년에는 기존에 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서 운영하던 응급잠자리가 분리되어 노숙인일시보호센터가 설치되었다.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3년 11월 대전시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2. 대전지역의 노숙인 현황

대전광역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의 전체 노숙인 등의 수는 659명이다. 이중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은 248명이며, 생활시설(자활시설, 재활시설) 생활자가 208명, 거리노숙인 및 이용시설 이용자가 4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책이나 연구에서 대상의 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노숙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숨어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포함한 전체 노숙인 수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2-1>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노숙인 등 현황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노숙인 등 전체 (A=B+C)	노숙인 전체 (B=D+E)	거리 및 이용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폭방 주민 (C)
			전체(D)	거리	이용시설 (일시보호)	전체(E)	자활	재활	요양	
2021년	659	248	40	30	10	208	85	123	0	411
	(100.0)	(37.6)	(6.1)	(4.6)	(1.5)	(31.6)	(12.9)	(18.7)	(0.0)	(62.4)
2020년	674	272	49	37	12	223	92	131	0	402
	(100.0)	(40.4)	(7.3)	(5.5)	(1.8)	(33.1)	(13.6)	(19.4)	(0.0)	(59.6)
2019년	752	299	53	36	17	246	102	144	0	453
	(100.0)	(39.8)	(7.1)	(4.8)	(2.3)	(32.7)	(13.6)	(19.1)	(0.0)	(60.2)
2018년	757	306	61	35	26	245	95	150	0	451
	(100.0)	(40.4)	(8.1)	(4.6)	(3.5)	(32.3)	(12.5)	(19.8)	(0.0)	(59.6)
2017년	705	293	52	30	22	241	95	146	0	412
	(100.0)	(41.6)	(7.4)	(4.3)	(3.1)	(34.2)	(13.5)	(20.7)	(0.0)	(58.4)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21

<표 2-2>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노숙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1월
계	293	302	299	299	267
자활시설	95	99	102	102	92
재활시설	146	149	144	144	132
일시보호	22	18	17	17	7
거리노숙	30	36	36	36	36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21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노숙인 수는 파악된 노숙인 수이지 전체 노숙인 수로 말하기는 어렵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매일 4회 이상의 아웃리치를 통해 노숙인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전역 인근을 중심으로 한 노숙 밀집장소(역사, 공원, 하천 등) 외에 특정 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수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에 거리노숙인으로 전락하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찜질방, 숙박이 가능한 만화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노숙인의 수는 발표되는 노숙인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표2-3>과 같이 매년 유입되는 노숙인 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3> 대전광역시 최근 5년간 신규 노숙인 등록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수	188	168	170	90	107

*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22

정확한 노숙인 수를 파악하기 힘든 것은 노숙인들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이동성 때문이기도 하다. 노숙인들은 특정 장소에서 노숙을 길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정 장소에서 장기간 노숙하는 경우 민원으로 인한 ‘귀찮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노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각의 아래나, 산속, 폐건물 등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제3절 대전지역 노숙인복지 서비스 체계

노숙인복지법 제8조 및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복지부)이 시행됐으며 2022년부터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복지부 ‘21.12월)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2022년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1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대전시 내부자료).

<표 2-4> 제2차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과제목록(대전광역시)

과제번호	과제명
1.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1-1.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
1-2.	거리노숙 위기지원서비스 강화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2-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2.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3.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3-1.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3-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4-1.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 지원
4-2.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4-3.	서비스 향상 및 환경 개선
5.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5-1.	노숙인 인권 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 추진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 역량 강화

1. 거리현장 지원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종합지원센터의 정기적 주야간 현장보호활동 강화 → 아웃리치 관리비율 100%이상 유지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거리노숙인의 실태파악 및 복지수요 파악 → 사회복귀 유도, 시설 연계 등 거리노숙인 최소화

2. 의료 지원

-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공백 최소화하고, 노숙인 의료욕구(신체·정신 등) 해소 및 의료접근성 확대
- 찾아가는 백신 접종 등 지자체의 보건소 등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3. 주거 지원

- 시설입소, 임시주거지원 및 지역사회에 확보 가능한 자원(내의 매입임대주택 등)을 통한 노숙인 등의 주거안전망 구축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모형 마련으로 노숙인, 쪽방주민 등의 주거지원의 다양성방향 제시

4. 복지서비스

- 지역사회 재정착을 준비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다면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안정화 및 사회복귀 성공률 향상
- 법적 기준의 사실인력기준 준수, 운영환경 개선,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등 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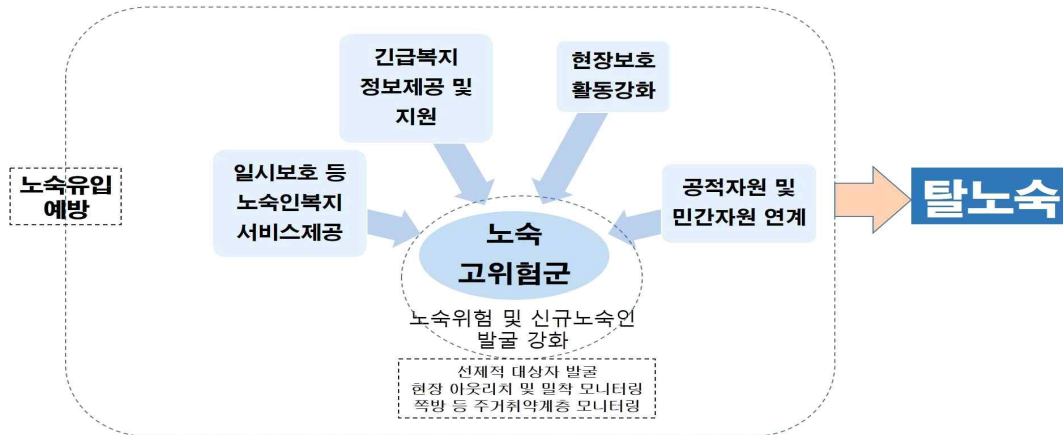
5. 인프라 구축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 관련 다양한 주체 간의 협약소통 채널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체계 마련
- 노숙인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를 통해 노숙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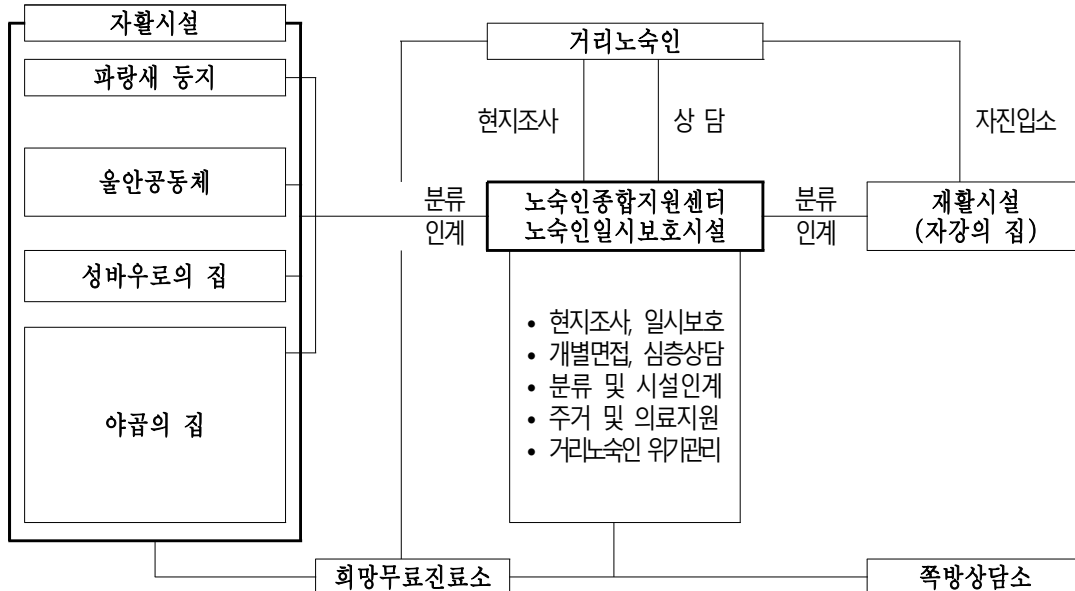
대전의 노숙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 노숙인복지 체계는 다음의 [그림2-1], [그림2-2]와 같다.

[그림 2-1] 대전지역 노숙예방을 위한 서비스 체계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21

[그림 2-2] 대전지역 노숙인복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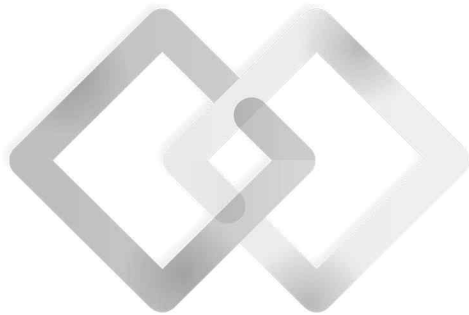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21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제3장 노숙인의 삶과 코로나19



제3장 노숙인의 삶과 코로나19

제1절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와 노숙인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다. 발생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변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하고 있다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8호) 제1호가목]

코로나19는 의료·보건 영역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난이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성격이 있다면 대응도 사회적이어야 하고 대응의 대상에 대한 취약성도 사회적인 성격이 나타나야 한다(코로나19의 노숙인·쫓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방안 연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의 대상인 거리노숙인은 극단화된 빈곤 집단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노숙인은 주거를 상실한 집단이다. 주거를 상실했다는 것은 잠을 자는 것 이외에도 식사, 자기 관리(건강 등), 심리적 안정 및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거의 상실은 국민권의 상실도 의미한다. 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시민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그렇기에 ‘시민’으로 인식되지 않는 노숙인은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1. 코로나19 이후 노숙인의 삶의 변화

노숙인에 대한 코로나19 문제는 2021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부터 노숙인의 코로나 감염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2021년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되어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 이용자 대상 선제검사가 시작되었다.

대부분 코로나19와 노숙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노숙인들은 코로나에 매우 취약한 대상으로만 이야기한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숙인들이 취약한 것은 맞다. 하지만 대전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노숙인은 2021년까지 한 명도 없었다. 물론 노숙인 시설 실무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노숙인들에게 코로나19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생계와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숙인들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감염이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줄어든 일자리, 식사 등 생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응답했다.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방을 얻어 살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숙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무료급식소의 폐쇄 및 급식 제한으로 식사 횟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코로나19이후 거리에서 만난 노숙인은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밥 주고 재워주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노숙인들에게 코로나19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대전지역의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서울의 노숙인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2021년 2월 9일부터 2월16일~17일 사이에 대전지역 전 노숙인 시설 및 거리노숙인 일제 선제검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거리노숙인 선제검사였다. 일반 시민들도 검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리노숙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종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이 거리노숙인들을 만나 설득하고 검사에 동의하는 노숙인들을 모아 검사 장소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이후 노숙인시설이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되면서 21년 2월 19일부터 시설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가 실시되었고, 중대본 발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대본 21.5.26)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2차까지)는 선제검사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년 9월 6일부터 2주 간격으로 기간 조정되었다. 2022년 들어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에 따라 요양병원, 시설 등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선제검사가 강화되고 기타시설은 2022년 2월 3일부로 시설종사자 선제검사가 중단되었다.

1) 대전시 노숙인 코로나 19 대응 체계

대전시가 발표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종합계획」에서의 노숙인 코로나19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다.

노숙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 1)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등 방역조치 및 백신접종 추진
 - 방역대응, 백신접종을 제고 등을 위한 현장보호 활동 확대
 - 결핵협회 결핵접종 연계한 임시접종 센터 운영, 보건소 찾아가는 방문접종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율을 제고
 - (쪽방상담소) 347명(결핵협회에서 대전역에 접종센터 설치)
 - (노숙인시설) 295명(보건소에서 노숙인시설 방문하여 접종)
- 2)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공백 대비계획 수립
 - 감염병 전담병원 및 노숙인 진료시설 활용*
 - * 충남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 을지대학병원, 보건소(5), 선병원, 시립정신병원
 - 민간의료기관 연계·협력방안 마련
 - * (1차) 노숙인시설 주변 병원, (2차) 관내 종합 및 전문병원, (3차) 충남대학교병원
- 3) 코로나 19 대응
 - 노숙인 확진시 생활치료시설 우선입소 등 대책 필요

2) 대전시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방역관리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전시에서는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결핵협회 등과 협조하여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방역물품 지원, 급식 지원 등 노숙인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조치를 하였으며, 노숙인 시설에 마스크, 방역소독약,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체온측정밴드, 자가검진키트 등을 지원하였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부터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대응지침을 통해 방역관리 협조사항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안내하였다.

<방역관리 협조사항>

<중략>

- (필수 선별검사) 생활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 입소 전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예방적 감염관리 강화
-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지자체 자원 활용 또는 노숙인시설 촉탁의를 활용(의사소견서 요청)하여 검사실시 등

대전시의 선제적 조치는 2021년까지 거리노숙인과 시설생활자 모두 감염율 0%로 유지되었으나, 2022년 일상회복 정책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노숙인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초반부터 대전시는 방역 사각지대인 거리노숙인의 방역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거리노숙인과 일시보호센터 이용 노숙인의 백신 접종을 유도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접종방법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통한 설득으로 백신 접종을 유도했으나, 거리노숙인의 접종률은 비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까지 거리노숙인 및 일시보호센터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은 <표3-1>과 같다. 이 현황은 2020년 9월까지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센터에서 조사된 대상으로 개인이 직접 접종한 거리노숙인은 포함되지 않은 수이다.

<표 3-1> 대전광역시 거리노숙인 및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2022년 9월)

(단위: 명)

	인원수	기본접종완료자	3차접종완료자	4차접종완료자
일시보호센터	13	10	4	0
거리노숙인	47	27	17	1

*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제2절. 언론에서 다룬 대전지역 노숙인과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대전지역 언론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전지역 노숙인의 문제를 기사화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사의 내용은 방역대책이나, 노숙인의 코로나 감염 현황, 물품 지원 등에 대한 것이었다. 노숙인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삶의 위기에 대해 보도하는 내용의 기사는 많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위기상황에 대해 다룬 기사 3개를 발췌했다.

금강일보 2020년 8월 18일 기사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노숙인이라는 흉터

A 모(50) 씨는 노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신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진 걸 모두 잃은 뒤 노숙인이 됐기 때문이다. 가족과 생이별한 그에게 지금 희망 따윈 없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던 그에게 코로나19는 20여년 전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운 IMF사태와 다름없다

. A 씨는 “코로나19가 터진 뒤 손님은 뚝 끊기고 대출 독촉장만 쌓였다. 마음은 급하고 조금이라도 만회할 요량으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 다른 일에 손을 댔는데 상황만 더 악화됐다”며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느낀 순간 집을 나와 지금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 이야기는 그만 하고 싶다”고 손사래를 쳤다.

몽골 출신 볼뜨(42) 씨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지난 1월 대전에 도착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했고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다. 지인의 소개로 건설업 일용직으로 일하며 다시 희망의 싹을 키웠지만 일감을 손에 쥐지 못하고 결국 이역만리에서 노숙인이 됐다. 갈 곳도 없고 고국으로 돌아갈 방도는 더욱 없던 그에게 선택 따위는 없었다. 볼뜨 씨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현재 같은 처지의 몽골인들과 함께 노숙을 하고 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긴 터널에 진입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렵사리 견디고 있지만 낙오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노숙인’ 들이다. 대전 지역만 하더라도 노숙인들이 증가 추세인데 코로나19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심지어 볼뜨 씨의 경우처럼 외국인 노동자들도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 대열에 합류 중이다.

대전에서 노숙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진숙(55·여)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 압박, 경제적·정신적 무력감에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위협받고 있는 이들은 중장년층”이라며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의 삶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자신이 선택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략)

기본소득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벤엘의 집 원용철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시민들이 노숙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 말고 다른 방도가 없는 지금,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위험과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훈수했다.

중도일보 2022년 2월 25일 기사

집 없는 노숙인 자가격리 쉼터 어디에... 시간싸움 '째깍째깍'

대전 지하상가에서 노숙인들이 잠자리에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거리에서 밤낮을 보내는 노숙인들을 위한 자가격리 쉼터가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확진시 건강관리가 어렵고 쉽게 확산될 수 있어 긴급돌봄을 위한 시설확보에 나섰으나 예산이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집 없이 역전과 지하상가, 하천변에서 잠자리를 마련해 지내는 노숙시민은 대략 250여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매일 아웃리치 활동으로 그동안 백신접종을 유도해 상당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 인근 주거공간을 임대해 단기간 머물며 지낼 수 있는 긴급잠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해 일부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 노숙인들은 하천과 지하상가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명 이상씩 발생하면서 이들 노숙시민 중에서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서울 영등포와 동대문 노숙인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00여 명 이상 확진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대전에서 노숙인의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도 아직 보급되지 않아, 명확한 증상이 아니고서는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 쉼터를 우선 마련해 확진된 노숙인이 자가치료 기간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들 사업에 필요한 긴급한 예산과 장소 그리고 지원할 인력을 섭외하는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 노숙시민 중에서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증이 아니고서는 입원 없이 자가격리하는 방역지침에서 거리의 노숙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 대전시와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일보 2022년 3월 20일자 기사

코로나19 확진 노숙인 이틀간 다리 밑 생활 방치...생치센터 입소 늦어져

대전 한 노숙인이 코로나19 확진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요청했으나 이틀 뒤에서야 격리가 이뤄졌다.

대전 한 거리노숙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이틀 뒤 시설격리가 이뤄져 논란을 사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그동안 가동률 30% 미만으로 운영되는 와중이었고, 취재가 시작된 직후 입소 격리가 이뤄졌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16일 일정한 집이 없이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 조모(55) 씨가 코로나19 최종 확진됐다. 목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자가진단 후 한밭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확진을 통보받았다. 조씨는 미망한 집이 없어 다리 밑에 텐트를 치고 지내는 노숙상태였다. 때문에 그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요청했으나 지자체 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자리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확진되고 이틀 지나도록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조씨는 여전히 다리 밑 텐트에서 지내는 중이었고, 18일 오후 기자와 만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준 감기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는데 목이 아픈 것 말고는 열은 없는 것 같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라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했다.

조씨는 작은 텐트 안에서 노숙인지원센터가 가져다주는 김밥 등으로 식사하며 지난 이틀 밤을 다리 밑에서 무사히 지냈으나, 어쩔 수 없이 인근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521개 병상 중 대략 110개 병상이 환자를 수용해 가동 중으로 421개 병상은 비어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구청 보건소 공보의가 확진자의 서류를 보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확진자가 크게 늘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18일 오후 8시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결정돼 시설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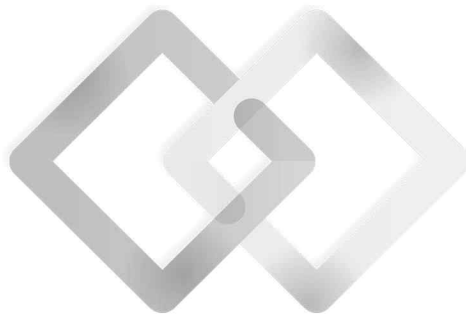
대전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노숙인이나 쪽방주민들이 확진됐을 때 스스로 건강을 살피기 어렵고 감염확산도 차단하기 쉽지 않은데 확진되고 이틀 후에야 생활치료센터 수용 결정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제4장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1절 노숙인 당사자 조사결과

노숙인 당사자 조사는 2022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내용 중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월 14일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숙인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를 꺼리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거리노숙인일수록 그 현상은 더 심하다). 힘들었던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소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노숙인을 만나는 활동가들은 노숙인의 말에 대해 해석하지 않고, 노숙인이 말을 한 시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듣고 기록한다. 본 조사에서도 되도록 많은 노숙인들의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으나,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괜찮다’, ‘별로 없다’는 등의 회피성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과 향후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관심있는 응답을 하였기에 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였고, 코로나 19와 상관이 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1. 거리노숙인

대전지역은 대전역(일부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역사, 지하상가와 대전천의 교각 및 인근 공원 등이 노숙 밀집 지역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리노숙인들은 공원, 교각 아래, 빈집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노숙한다. 노숙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주간에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허름하거나 더러운 옷차림을 한 사람,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노숙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

만 노숙인들 중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극히 낮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전역 인근에서 주간에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대전역을 기점으로 거리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낮에 대전역 인근으로 모이고, 야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거리노숙인들은 낮에는 노숙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인근을 떠돌거나 고물수집 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심야 시간에 본인이 잠을 자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저녁 10시 이후이다.

코로나19는 거리노숙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터뷰에 응한 거리노숙인들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고, 백신 접종도 비교적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사 등 생계에 대한 욕구와 일자리, 주거지원, 소득보조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또한,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의료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는 노숙인은 없었는데, 대부분 거리노숙인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병원을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거리노숙인 면접 조사는 저녁 22:00부터 새벽 01:00까지 노숙인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약속을 하였고 주간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도록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4-1> 조사 참여자(거리노숙인) 개요

대상자	연령	성별	최초 노숙시기
거리노숙인 A	46세	남성	2000년 여름경
거리노숙인 B	58세	남성	2000년 8월경
거리노숙인 C	40세	남성	2001년 2월경
거리노숙인 D	66세	남성	2010년 6월경

<표 4-2> 조사 참여자(거리노숙인)-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거리노숙인 A	계속 어렵기 때문에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조치 외에 변화는 없다. 밥도 급식소 등 여 기저기서 얻어먹고 다녔고, 아픈 적이 없어 병원에 간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 빨리 죽고 싶다.
거리노숙인 B	코로나 이후 활동이 줄었으며, 의욕을 상실했다. 일자리가 줄어 힘들어졌고, 돈이 없어 병원을 가 지 못하게 되고 아프면 무료진료소를 이용하게 되었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식사를 해결한다.
거리노숙인 C	일이 줄었다. 코로나 전에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했으나 코로나 이후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가 줄어 식사 해결이 힘들다. 시설 이용도 조금 불편해진 것 같다.
거리노숙인 D	방역 조치가 생긴 것 외에 변화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일자리가 줄었다. 전에는 일하는 곳에서 식 사를 했는데, 지금은 식당에서 사먹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먹는다.

<표 4-3> 조사 참여자(거리노숙인)-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거리노숙인 A	의심증상 및 감염경험 없음. 검사나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다.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받지 않 았다. 마스크를 주면 쓰고 안주면 안쓰고 다녔다. 마스크는 잃어버릴 때까지 사용한다.
거리노숙인 B	코로나에 감염된 적은 없으며,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1회 40만원을 받았다. 금액이 많았으면 좋 겠다. 연락을 받지 못해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 연락을 받아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초기에서 마스크를 사서 이용했고, 지금은 종교단체나 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 사용한다.
거리노숙인 C	백신은 3차까지 접종했고, 방을 얻어 살 때 의심증상으로 격리한 적이 있다. 1차 40만원, 2차 80만 원 수령,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거리두기, 마스크 등 최대한 조심 하고 있다. 마스크는 부족하다.
거리노숙인 D	코로나 검사나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없다. 재난지원금이 뭔지도 모르고 신청방법도 모른다. 종합지 원센터에서 주는 마스크등을 사용하거나 다○소에서 사서 사용한다. 다른 건 없다.

<표 4-4> 조사 참여자(거리노숙인)-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거리노숙인 A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치료센터에 들어가고 싶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다. 노숙인들이 병원진료를 잘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리노숙인 B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의식주 해결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줄어 생계가 힘들다. 주거지원, 소득보조, 의료지원, 식사지원이 필요하다.
거리노숙인 C	백신접종 등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로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 소득보조, 급식지원이 필요하다.
거리노숙인 D	필요한 것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4명의 거리노숙인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노숙기간은 최소 12년부터 22년까지로 비교적 장기간 거리노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응답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2명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58세, 남성)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는 일을 하고 수입이 있어 방을 얻어 살았다. 코로나 이후로 일이 끊겨서 노숙하게 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바깥 활동이 많이 줄고 살 의욕이 없어졌다. 간혹 용역에 나갔는데, 일용직 일자리도 많이 줄어서 살기가 힘들어졌다. 노숙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불편해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 수입이 없으니 살기가 힘들었다.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무료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 전에는 집에서 밥을 해 먹었고, 무료급식소는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밥이나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고 의심증상도 없었다. 노숙하고 있지만, 생활방역도 하고 위생에도 많이 신경 쓴 덕분이다. 백신은 지인들에게 정보를 듣고 4차까지 다 보건소에서 맞

왔고 코로나 검사도 보건소에서 3번 정도 받은 거 같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를 사서 사용했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 부담이 되었다. 지금은 교회나 복지시설에서 지원받아 부족하지 않다. 손소독제도 가지고 있다. 체온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카드 40만 원을 한번 받았는데 두 번째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연락을 받았더라고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구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쉬운건 없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생계비나 의식주를 해결하기보다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코로나에 걸린다면 격리치료를 받고, 의식주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방을 얻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소득보조나 의료지원, 식사를 할 수 있는 물품 지원도 필요할 것 같다. 재난지원금 금액은 좀 부족했다.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노숙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2) 이○○(40세, 남성)

코로나 이후 노숙하게 됐다. 창원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고 대전으로 올라와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 지금도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해서 돈이 생기면 방을 얻어 생활하고, 일하지 못해 돈이 없으면 노숙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택배 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택배 일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인력사무실에 나가 일용직 일만 하며 버티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 3차까지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거리에서 지내니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 보건소에서 홍보하지 않는 것 같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카드로 받았는데 생계비로 주로 사용했다. 마트나 다○소 등 사용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거리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이후로 무료급식하는 곳이 많이 줄어서 식사 해결이 힘들어졌다. 특히 점심 해결이 어려워 고통스러웠다. 직접 밥을 주는 곳이 없어지고 도시락으로 바뀌어 도시락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밖에서 먹기도 힘들다.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급식과 방역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체온 체크 등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다행히 코로나에 감염된 적은 없으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격리해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및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입소절차와 이용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거주 기한이 정해져 있다. 월 20일 이용이 가능하며, 4개월 이용했을 경우 2개월은 이용이 불가능하다.(코로나 이후 이용제한이 폐지되었다가 2022년 3월부터 이용제한 다시 시행 중임). 하지만 동절기(11월~3월), 하절기(6월~8월)에는 제한이 완화되고, 고위험군(고령, 여성, 질병 또는 장애 노숙인 등의 경우)이나 일자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 기한이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일시보호센터의 환경도 살펴봐야 한다. 일시보호센터의 환경은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2층은 남성 숙소(샤워실, 화장실), 주방, 사무실, 휴게실이 있다. 식사, 휴식, 세탁, 짐 보관 등이 모두 휴게실에서 진행된다. 남성 잠자리는 2층 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도 난방이 되어 바닥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침대 사이에 샤워 커튼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3층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건물로 여성 숙소와 화장실(샤워실), 창고와 옥상 공간이다. 여성 노숙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여성 숙소와 화장실이 있다. 여성 노숙인들도 휴게, 식사 등은 남성 노숙인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한다. 시설 구조상 집단 감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이용자 중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와 실무자 전원이 검사를 받기도 하는 등의 문제상황이 있었다.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5명을 대면 인터뷰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노숙인들로 노숙을 하던 때와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는 현재의 생활에 차이를 보였다.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는 현재는 숙식, 방역 등이 해결되어 안정적이거나, 노숙할 때는 매우 불안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줄어 실직을

하거나, 노숙을 시작한 대상자도 있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이 아니어서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고, 병원을 가기도 힘들어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면접조사는 주간에 휴게실에 있는 분을 면담하거나, 야간(20:00~22:00)에 저녁식사 후 일시보호센터 내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문제가 없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은 제외하거나 유사한 답변은 내용을 통합하였다.

<표 4-5> 조사 참여자(일시보호센터) 개요

대상자	연령	성별	최초 노숙시기	최초 이용시기
이용자 A	46세	남성	2022년 7월경	2022년 9월경
이용자 B	35세	남성	2016년 1월경	2016년 1월경
이용자 C	43세	남성	2022년 3월경	2022년 3월경
이용자 D	30세	남성	2021년 2월경	2021년 2월경
이용자 E	32세	여성	2021년 10월경	2021년 2월경

<표 4-6> 조사 참여자(일시보호센터)-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이용자 A	일자리가 줄어 힘들어졌다. 사람들도 피하고 있다..
이용자 B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경계하게 됐다. 코로나 전에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가지 않는다. 차라리 굶는다. 코로나 이후에 자활사업 참여가 힘들어진 것 같다.
이용자 C	이전에도 사람을 피해 다녀 변화를 잘 모르겠다. 무료급식소나 일시보호센터, 무료진료소 등 도와 줄 수 있는 노숙인시설을 몰랐다. 코로나 이후로 수입이 줄어들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기 힘들었다. 아프면 그냥 참았다.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던 서비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용자 D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줄고 노숙을 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늘었다. 외출을 안해 우울해지고 살도 췌다. 아프면 버티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많다. 코로나 이후 노숙 후에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하루 한두 번 정도 사먹는다.
이용자 E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잃고 노숙을 하게 되어 많이 굶었다. 노숙을 하면서 거의 굶었다.

<표 4-7> 조사 참여자(일시보호센터)-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이용자 A	백신은 3차까지 접종. 노숙인 시설에서 도와줬다. 감염된 적은 없다.수령하지 않았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신청하지 않았다. 노숙을 하면서 신청하고 싶었지만 기간이 지나있었다.
이용자 B	백신은 3차까지 접종. 의심증상이 있었으나, 감염된 적은 없다.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 카드로 수령받았다.마스크가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시설에서 도움을 받아 문제가 없다.
이용자 C	백신은 2차까지 접종. 의심증상도 없었다.두 번 받았다. 지역화폐로 받아 생활비로 썼다. 노숙인들은 더 줬으면 좋겠다.
이용자 D	백신은 3차까지 접종. 코로나에 3번 감염됐다. 한번은 일하는 곳에서 걸렸고, 두번째까지는 생활치료센터에 갔으나 세 번째 감염됐을 때는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못하고 당시 지내던 지인 집에서 격리했다.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다.지역화폐로 받았으나 주소지와 생활지가 달라 사용하지 못했다.
이용자 E	백신은 3차까지 접종. 코로나에 감염된 적은 없다.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압류돼서 사용을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노숙하면서 긴급생계비를 받았는데 그건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노숙할 때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마스크를 사용했다. 하지만 따로 방역에 신경 쓸 수 없었다. 지금은 센터에서 지원해주니 부족한 게 없다.

<표 4-8> 조사 참여자(일시보호센터)-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이용자 A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이나 격리시설에서 치료 받고 싶다. 코로나 이후에 일이 많이 줄고 생계가 어려워졌다. 먹고 자는 문제가 급하다.
이용자 B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시설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줄어 생계가 어렵다 생계비 같은 지원이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용자 C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 같은 곳에서 격리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도 더 지원해줬으면 한다. 내 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용자 D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거나, 주거지원을 받아 식사나 의료지원을 받고 싶다. 코로나 이후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졌다. 상담이나 진료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다.
이용자 E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 같은 곳에서 격리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에 마음이 힘들어졌다. 상담이 필요하고, 구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고 싶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5명의 일시보호센터 이용자에는 남녀가 섞여 있으며, 거리 노숙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이들 중 응답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3명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46세, 남성)

광주에서 노숙하다가 대전으로 와서 일시보호센터를 알게 되어 이용하고 있다. 거리에 서 지내고 나서부터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곳은 일부러 피하게 되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있었다. 광주에서는 돈이 없을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에서 노숙했고, 돈이 있을 때는 제일 싼 역전 근처의 여인숙이나 모텔을 이용했다.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했다. 노숙상황에서 이용자들끼리 자리싸움을 하거나 터미널에서 자다가 경비들에게 쫓겨나는 걸 본 적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자리를 피해서 쫓겨난 경험은 없다.

코로나 이후에 일감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쌓였다. 코로나 이전보다 술자리는 피하게 되었고 마시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마시거나 혼자 마시니까 술값이 덜 들기는 했다.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있다고 들었지만 이용한 적은 없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노숙을 시작해서 추운 것 말고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끼니 해결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백신은 3차까지 접종했다. 마스크 같은 것은 시설에서 지원 해줘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다행히도 코로나엔 걸리지 않았다. 평소에도 병원은 잘 다니지 않았다. 크게 아픈 적도 없고, 아파도 약을 먹고 참으면 됐다. 시설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병원을 갔지 그 이후에는 병원을 가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은 받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지 않았다. 솔직히 마지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는 어려워서 받고 싶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했다. 그때는 정말 배도 고프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못 받아서 아쉬웠다.

코로나 이후 먹고 자는 문제가 제일 시급해졌다. 코로나 전에는 방을 얻어 생활했는데, 코로나 후로 수입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져서 방세를 내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게 됐다. 일하는 시간도 줄었고 일자리도 줄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근무 시간은 보장해서 법정 시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별이는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길거리 사람들이 더 나자빠지지 않을 것 같다. 아침에 거리에 나가보면 술을 먹고 뺨은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의 별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거리에서 지내지 않도록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2) 신○○(30세, 남성)

인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내다가 2021년 2월부터 노숙을 했다. 폐가에 숨어 살았는데, 노숙하던 폐가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다. 나는 당시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경찰이라고 착각하여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다. 그 후 일시보호센터를 알게 되어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삶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일자리를 구해도 중간 방역수칙 조정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힘들었다. 코로나 전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쉬웠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일자리도 줄고, 수입이 줄어드니 생계도 어려워져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코로나 전 일용직을 할 때는 주로 숙소에서 밥을 먹었는데 노숙을 시작하고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먹었다. 노숙하면서 배고픔이 익숙해졌음에도 배고픔은 더 심해졌다. 노숙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 밥을 조금 먹고 소화를 덜 시키는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소화 속도를 조절했다. 일부러 한 끼도 안 먹은 적도 있고 입맛이 없으면 안 먹고 하루 종일 잠을 잤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잠자는 것으로 풀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이용해보지 못했다. 주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서 먹었다. 대전에 와서 종합지원센터에서 거리에 상담을 나온 선생님을 만나 처음 노숙인시설을 접하게 되었다. 여기는 잘 챙겨 주는 것 같아 좋다.

노숙하면서 밥도 잘 못 먹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살도 빠지고 빈혈 증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몸도 많이 회복됐지만, 대신에 잘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아서 그런지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려고 무료급식소 같은 곳은 이용하지 않는다.

노숙하게 된 후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못한 적이 많다. 의료보험이 자격정지가 돼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병원 가기가 꺼려졌다. 아플 때는 사업하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타○○놀을 먹으면서 버텼다. 버티다 안돼서 치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곳(무료진료소)을 찾았다.

백신은 3차까지 맞았다. 당시에는 노숙인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움은 못 받았고 인터넷으로 내가 신청했다. 일시보호센터에 입소한 후로는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재

난지원금을 25만 원 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인천에 있어 지원받은 부산 지역 화폐는 사용하기 어렵고 부산으로 가서 쓸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다. 재난지원금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말고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화폐가 지급되면 좋겠다.

코로나를 세 번 걸렸었다. 2020년 1월에 처음 걸렸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고 두통만 있어서 집에서 쉬었다. 당시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출근하니 동료 중에 코로나 양성이나와 단체로 검사를 하였고 나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회사에서 일주일 격리를 도와주었고 하루 일당의 절반을 받았다. 약품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해 배달을 받았다. 병원 진료는 따로 보지 않고 집에서 격리하고 투약하고, 격리가 끝날 때 119에 전화해서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하고 음성으로 확인을 받았다. 두 번째는 21년 5월~6월경이었는데 몸살 기운만 있었다. 주변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 호기심에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저녁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아침에 양성문자를 받아서 바로 집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2주간 격리를 했는데 3일 정도 후 몸 상태가 좋아져서 나머지 격리 기간은 집에서 그냥 쉬었다. 약품은 택배로 받아 복용했고, 2주가 지나 격리종료 알람 받고 격리를 끝냈다. 세 번째는 심한 통증과 후각·미각·통각에 대한 감각 이상 및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친구가 코로나 걸려서 나도 감염되었다. 22년 3월 정도였다. 친구가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나도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미리 약을 준비했다. 지원은 따로 받지 않았다. 식사는 집에서 시켜 먹거나 해 먹었다. 일주일 격리를 했는데,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공실이 없다고 해서 입소하지 못했다.

코로나에 걸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공공기관에 빨리 연락하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싸그리 준비하는 것이다. 약품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손소독제와 음식도 많이 필요하다. 나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지 못했고 안내도 제대로 못 받아서 구호물품 및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머물 수 있는 장소와 식사 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후 정신적인 데미지 회복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진료 지원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같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일을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노숙인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 이용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 같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 안에 안정된 직업을 찾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같은 노숙인들이나 노약자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3) 이○○(32세, 여성)

서울에서 아버지와 살다가 불화로 집을 나와 노숙을 시작했다.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밥을 굶었다. 주변에는 무료급식소가 없었고 정보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다. 의욕도 없었고 장기간 굶다 보니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고 갈증만 느꼈다. 밥을 사서 먹을 돈도 없었다. 두 달 정도 바깥에 있으면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다. 멍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무기력하고 어지럼증을 느꼈다. 대처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굶었던 것 같다. 구호요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다가왔을 때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주어 상담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서울에서 노숙할 때는 많이 힘들었다. 지하철과 지하상가 주변에서 노숙하게 됐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장소나 환경 등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자리를 이동하라거나 쫓겨난 적은 없다. 당시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언제부터 노숙했는지 등의 질문했고, 사정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셨다. 밖에서 노숙하기 힘이 드니 기초수급을 만들어 주고 싶어 했지만, 나이가 제한되어 긴급지원을 3개월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고시텔도 지원을 해주셨다. 거기서 나와야 할 시점에 대전으로 내려왔다. 어떤 이유나 생각이 없이 무작정 대전으로 온 것이다. 대전에 와서 무료급식소를 처음 이용해 봤다.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노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 적이 없다. 마스크는 노숙 이후에는 교회에서 나눠주시는 걸 받아서 쓰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주시는 걸 받을 때마다 교체해 사용했다. 백신은 3차까지 접종받았다. 모두 서울에서 접종했다. 직접 앱을 이용해서 예약했다. 서울에서 노숙할 때나 코로나 후에도 특별히 병원을 가지 않았다. 노숙할 때도 병이 없었고, 백신을 맞고 코로나 이상 증상도 없었다. 재난지원금은 서울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 때 아버지가 알려줘서 받았다. 4차까지 받았는데, 일부는 압류 통장으로 들어와서 쓰지 못했다.

코로나 이후로 마음이 갑갑하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간관계 등 사람 간의 소통에 조심하게 되고 평소에 신경을 안 쓰던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전 습관이 됐다. 필요한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서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

3. 재활시설 생활자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장애 및 유질환자의 비율이 높다.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어 장기생활자 비율이 높고 재활시설에 비해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활시설 생활자 중 3명을 인터뷰했다. 재활시설 생활자들은 일상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불편해진 것과 외출, 외박의 제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부분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시설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시설 실무자들의 업무와 근무 강도가 커진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실무자들의 인터뷰에서 시설생활자들 관리와 지원에 대한 업무가 많아진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활시설 생활자의 면접조사는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주간에 인터뷰하였다.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문제가 없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은 제외하거나 유사한 답변은 내용을 통합하였다.

<표 4-9> 조사 참여자(재활시설) 개요

대상자	연령	성별	최초 노숙시기	입소시기
생활자 A	67세	남성	2002년 9월경	2022년 2월경
생활자 B	50세	여성	2003년 3월경	2003년 3월경
생활자 C	66세	남성	1998년 5월경	2016년 4월경

<표 4-10> 조사 참여자(재활시설)-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생활자 A	생활자간 거리 두기, 식당에서 식수 인원 제한 같은 변화가 있었으나 큰 문제는 없다. 외출·외박의 제한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생활자 B	생활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생활자 C	시설에서 하는 방역 조치 외에 큰 변화는 없다.

<표 4-11> 조사 참여자(재활시설)-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생활자 A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시설 내 격리를 한 적 있으나, 감염되지 않았다.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으며, 재난지원금도 시설에서 일괄 신청해서 받았다.
생활자 B	독감으로 일주일 격리한 적 있었으며, 코로나에도 감염되어 시설 내 격리실에서 5일간 격리치료를 받았다.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재난지원금은 시설에서 일괄 신청해서 받았으며, 코로나 확진 후에도 지원금을 받았다.
생활자 C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으며, 코로나는 감염되지 않았다.

<표 4-12> 조사 참여자(재활시설)-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생활자 A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전한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활자 B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할 때 생활용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전에 작업장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못해서 일하고 싶다.
생활자 C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노숙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었으면 좋겠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3명의 재활시설 생활자들은 최초 노숙 시기가 19년, 20년, 24년으로 장기 노숙인이었으며, 시설 입소 시기는 7개월, 6년, 19년으로 비교적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상자도 있었으나, 장기생활자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응답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2명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67세, 남성)

코로나 후로 변한 것이라면 입소자 간 거리두기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4명이 먹던 식탁에서 2명이 먹는다는 것이다. 식탁에 칸막이가 설치됐고,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나 외박의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화되어 외출, 외박이 가능해졌다. 코로나 기간 중 외출·외박을 못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시설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시설 직원들이 하루에 두 번 체온을 잰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체온을 잰다. 손소독제

도 자주 사용하게 됐다. 병원에 가는 것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프면 얘기해서 병원에 가거나 선생님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약을 받아서 먹는다. 마스크도 시설 입구에 비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사용한다.

코로나 의심증상 때문에 격리를 한 적이 있었다. 열이 나서 시설 안에 있는 격리공간에서 1주일간 격리를 했다. 격리할 뿐이지, 격리공간도 좋고 선생님들이 잘 챙겨줘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

코로나에 감염된 적은 없다.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는데, 시설에서 백신 접종이나 검사와 관련해서 도와줘서 어려운 것은 없었다. 재난지원금도 시설 직원들이 도와줘서 카드로 받았다.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다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해서 치료받을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소득보조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수급비를 받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외출, 외박을 나갈 때도 밖에서 감염이 되어와서 시설에 복귀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2) 최○○(50세, 여성)

코로나 이후로 청결과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쓴다. 손 씻기는 하루 열 번도 넘게 한다. 손 소독제도 자주 바른다. 하지만 조심해서 생활해도 시설 안에서도 생활자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친한 사람과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많고,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하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식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지금은 익숙해졌다. 독감에 걸려서 1주일간 시설 안에서 격리를 한 적도 있고, 시설 안에서 코로나에도 감염됐었다. 감염 후에 시설 안에 의심환자와 감염자 격리장소가 따로 있는데 감염자 격리장소에서 5일정도 격리를 했다. 백신 접종이나 재난지원금도 시설에서 도와줘서 문제가 없었다.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지원금도 받았다.

내가 바라는 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코로나 전에는 작업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못 하고 있어 일하고 싶은 생각뿐이다.

4. 자활시설 생활자

노숙인 자활시설은 비교적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이 입소하여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유로운 출입, 생활자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활시설 생활자들은 직장에 다니거나 자활사업, 노숙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건강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대전지역에는 4개의 자활시설이 있다. 4개 시설에서 각각 3명씩 총 12명의 노숙인을 인터뷰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셨던 노숙인들의 경우 시설 의존도가 높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의 경우 방역과 관련한 마스크 등 수급,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수령, 식사,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자리의 감소는 자활시설 생활자들 모두에게 큰 변화였다. 대부분의 자활시설 생활자들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의 감소는 큰 타격으로 보인다.

자활시설 생활자의 면접조사는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문제가 없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은 제외하거나 유사한 답변은 내용을 통합하였다.

<표 4-13> 조사 참여자(자활시설) 개요

대상자	연령	성별	최초 노숙시기	시설입소
생활자 1	26세	남성	2022년 1월경	2022년 1월경
생활자 2	40세	남성	2013년 12월경	2016년 3월경
생활자 3	76세	남성	2015년 3월경	2015년 4월경
생활자 4	64세	남성	2017년 1월경	2017년 1월경
생활자 5	65세	남성	2021년경	2021년 6월경
생활자 6	62세	남성	2009년 3월경	2021년 11월경
생활자 7	66세	남성	2009년 7월경	2011년 11월경
생활자 8	55세	남성	1999년 1월경	2020년 9월경
생활자 9	55세	남성	2022년 3월경	2022년 9월경
생활자 10	73세	남성	2015년 3월경	2015년 12월경
생활자 11	57세	남성	2020년 1월경	2022년 7월경
생활자 12	36세	남성	2022년 1월경	2022년 4월경

<표 4-14> 조사 참여자(자활시설)-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생활자 1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인 집을 전전하다 노숙을 하게 되었다.
생활자 2	코로나 이후 감염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서 방역과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쓴다. 코로나 때문에 게이 트웨이 신청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신청자가 몰려 교육받는 기간이 길었다.
생활자 3	코로나 이후 외출을 자주 못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활자 4	코로나 이전부터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 스트레스는 없다.
생활자 5	코로나 이후로 야외활동이나 사람들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생활자 6	코로나 이후로 건설일용직 일자리가 줄어 일을 하지 못했다.
생활자 7	코로나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면회가 제한되어 불편했다.
생활자 8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활자 9	코로나 이후 시설에 입소했다. 입소 전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해졌다.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비가 없어 받지 못했다. 아는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식당 출입이 어려워 굶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이후로 식당 출입이 어려워 굶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자 10	코로나 이후로 생활 활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다. 코로나 전에는 세끼를 다 먹었지만,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아침과 저녁만 먹는다.
생활자 11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 줄어들고, 현장에서 불러주지 않았다. 무료급식소는 식판에 밥을 주다가 도시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도시락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서 힘들었다.
생활자 12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뉴스를 보면 무서워진다.

<표 4-15> 조사 참여자(자활시설)-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생활자 1	백신은 2차까지 접종했다. 노숙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에 감염되어 시설의 도움을 받아 시설 내에서 격리치료를 받았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을 포기했다.
생활자 2	백신은 3차까지 접종했다. 3차 접종 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며, 시설 내에서 격리치료를 받았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고 싶어 보건소 등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돼서 그냥 시설에서 격리했다. 재난지원금은 시설에서 안내해줘서 현금으로 받았다.
생활자 3	백신은 3차까지 접종했다. 재난지원금은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신청해서 받았다.
생활자 4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등이 부족해 힘들었지만, 지금은 시설에서 지원해주시 부족하지 않다.
생활자 5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4차 백신을 접종하고 후유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재난지원금은 한번 받았는데, 한 번에 주는 것 보다 여러번 분할해서 주면 아껴쓸 수 있을 것 같다
생활자 6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에 감염된 적은 없으며, 재난지원금은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해 한번 지원받았다.
생활자 10	백신은 3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를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기력이 없어졌다.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고, 코로나 감염 후에 보건소 안내로 지원금을 받았다.
생활자 11	백신은 2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에 감염 후에 시설 내 격리공간에서 격리하다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았다.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고, 코로나 감염 후에 시설 안내로 지원금을 받았다.
생활자 12	백신은 2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 감염 후에 지원금 10만원을 받았다. 지원금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 4-16> 조사 참여자(자활시설)-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생활자 1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일자리 지원, 소득지원, 주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활자 2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 연계가 중요하다. 후유증이 생기면 병원진료를 지원 받으면 좋겠다.
생활자 3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 같은 곳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싶다. 수급자지만 소득보조가 필요하다.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계비도 나오지 않고, 고령이라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워 생계가 힘들다.
생활자 4	코로나에 감염되면 숙식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가고 싶다.
생활자 5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치료를 받고, 격리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이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 라디오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생활자 6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보다 개인이 자가격리를 했으면 한다.
생활자 7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과 물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가 줄어 소득보조가 필요하다.
생활자 8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줄어 생계보조가 필요하다.
생활자 9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로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소득보조, 물품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활자 10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후유증이 있으면 약품 지원이 받았으면 한다.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가 줄어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생활자 11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12명의 자활시설 생활자들은 연령대가 다양한 특징이 있으며, 모두 남성이다. 이들의 최초 노숙 시기는 6개월~13년으로 다양했으며, 시설 생활 기간 또한 2개월~12년으로 다양했다. 면접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5명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26세, 남성)

코로나 전에는 창원에서 상근으로 군 복무를 했다. 이후 대전으로 와 노숙을 시작했고, 2022년 1월에 시설에 입소했다. 성격상 사람들과 만남을 자주 하지 않아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으나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격리되는 것에 신경은 쓰인다. 코로나 이후 가능한

외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백신은 21년 9월, 11월 2차까지 접종했다. 백신 접종 신청 관련 연락을 받은 후 직접 신청하고 접종했다.

몸살이 심하게 와서 시설에서 자가검진키트로 두 번 검사하여 음성이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자가격리 중 필요한 물품은 시설에서 제공해 줬다. 시설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하였으나 타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싫어 거절하고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았다. 주소지가 창원이었으며 당시 제주도에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사용할 수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다. 지역화폐가 아닌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코로나 관련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직 일자리가 감소해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주거지원이다. 일자리가 줄고 수입이 없으니 방세를 내기 힘들어 노숙하게 됐다. 집과 일자리가 있으면 자립해서 다시는 노숙하고 싶지 않다.

2) 신○○(40세, 남성)

코로나 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 생활은 큰 불편이나 차이는 딱히 없다. 다만 코로나 유행 전에는 자유롭게 외출했는데 지금은 많이 조심스러워져 외출도 잘 안한다. 백신 접종 3차 이후 22년 3월에 확진되었는데, 확진 이후에 시설에서 격리했다. 코로나 확진 이후에는 항체가 생겨 다시 걸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한 해졌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약을 잘 처방해주었으면 좋겠다. 병원에서 귀가하며 직접 약을 샀다. 시설에서 감기약이나 다른 약품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격리에 필요한 구호물품 키트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시설에서 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았지만, 정부에서 주는 구호물품이 있으면 확진되지 않은 다른 시설생활자들과나 실무자들과 접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게이트웨이 신청이 중단된 적이 있다. 다시 시작됐을 때 신청자가 많이 몰려

서 신청을 한 이후 교육받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 노숙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3) 윤○○(55세, 남성)

오래 전부터 고물수집을 하며 살았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음주문제와 당뇨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몇 번 했는데, 입원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가 필요해서 금전적으로 쪼들렸다. 병원비는 의료급여(2종)가 있어 괜찮았으나 코로나 검사는 입원 전에 검사비를 내야 해서 힘들었다. 병원비는 자비로 하거나 돈이 없을 때는 병원(사회사업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적도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고물수집도 어려워져서 수입이 거의 없어졌다.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워 재활용을 했다. 마스크 한 장으로 3~4일을 사용했다. 마스크가 필요해 주민센터에 찾아간 적이 있지만 받지 못했다. 노숙할 때는 옷이 지저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 의자나 그늘진 곳에서 잠을 잤다. 일하지 못해 돈이 벌리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많이 늘었다. 코로나 전에 식사는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식사를 해결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식당 출입이 어려워 굶는 경우가 많아 고통스러웠다. 무료급식을 한다고 해도 지리를 잘 몰라 급식 장소에 찾아가면 시간이 지나 급식이 끝난 경우가 많았다.

시설 입소 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지금은 4차까지 접종했다. 1차와 2차 때는 연락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직접 보건소에 찾아가 맞았다.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련한 것은 잘 알지 못했다.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 지인을 통해 들어서 알았으며 지인이 신청할 때 따라가서 신청했다. 정부 지원금과 대전시 지원금 모두 카드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에 걸린다면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격리할 수 있는 장소와 격리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검사가 무료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마스크나 코로나 검사 비용도 무료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4) 김○○(73세, 남성)

현재 퇴소 전 독립생활을 경험하는 ‘가퇴소’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생활 활력이 많이 떨어졌고 재미가 없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 산소 공급 문제 때문인지 편두통이 오고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귀가 많이 아프다. 방역에 관한 기본수칙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잘 지키고 있다. 사람 많은 곳은 거의 가지 않고, 가능하면 한산할 때 식당에 가서 간혹 점심을 사 먹는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는 것도 꺼려지고,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으로 아침과 저녁만 집에서 대충 챙겨 먹는다.

얼마 전에 잔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많이 끓었다. 코로나가 의심되어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고 근처 내과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다. 가퇴소 기간이어서 다행히 격리는 집에서 할 수 있었다. 1주일 격리 기간에는 집에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시설에서 약이나 먹을거리, 생필품 등 도움을 줘서 해결했다. 격리 이후에 한 달 정도는 기력이 계속 떨어져 힘이 들었다. 코로나 확진되면 생활치료센터에 가면 좋겠다. 그게 최우선일 것 같다.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보건소 안내를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해 1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해도 지원금에 대한 안내가 따로 없으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것 같다.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쉽고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잘 안내를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재난지원금이 금액이 더 상향되어 지급됐으면 좋겠다.

5) 김○○(57세, 남성)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생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먹고살다 보니 더욱 체감이 많이 되었다. 인력시장에 나가보아도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없었다. 그 외에도 친한 지인들과 거의 만나지 않고 피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다. 코로나 초기에는 일용직을 하다 보니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해서 매번 마스크를 사서 썼었고, 먼지나 이물질 등이 많아 자주 교체하여 마스크를 사는 비용의 부담도 꽤 있었다. 지금은 시설에서 제공해 주니 문제가 없다. 생활방역도 시설에서

알아서 잘해 준다. 코로나 전에 대전역에서 무료급식 식사는 식판이었는데, 지금은 도시락으로 바뀌었다. 코로나 시국이 심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식판에 받아 밥을 먹을 때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었다. 코로나 전에 아플 때마다 무료진료소를 이용했다. 시설에 입소하고 나서는 지원을 받아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다. 백신은 2차까지 접종했다. 종합지원센터에서 예약해 줬다.

얼마 전 창문을 열고 자서 감기에 걸린 듯 목이 따끔따끔했다. 근처 내과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인 나와 일시보호센터 3층에서 1~2시간 정도 격리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잘 알아봐 줘서 구급차를 타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실할 수 있었다. 7일 동안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다. 혹시 몰라 생필품을 챙겨갔는데 그쪽에서 이미 생필품을 준비해주셔서 따로 필요가 없었다. 식사 및 간식도 잘 나왔으며, 시설도 양호하여 쾌적하게 잘 지냈다. 코로나에 걸린 노숙인들이 있으면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지도 몰랐으나 시설에서 안내를 해주어서 신청한 덕분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예전엔 코로나 걸리면 강제로라도 국가에서 격리하고 관찰하였다면, 요즘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하는 모습이라 사람들 마음이 조금 더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조금은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초창기보다 마음가짐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한다. 겨울철이 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5. 자립생활자

자립생활자 6명을 인터뷰했다. 자립생활자들은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을 받아 자립한 경우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다. 대상자 중에는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돈을 모아 LH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분도 있다.

노숙인들의 성공사례는 자립이다. 자립과 사회복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자립생활을 혼자 집을 얻어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회복귀는 완전한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노숙인들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사회복귀를 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하지만 자립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사회복귀는 충분히 가능하다.

노숙인들의 자립율은 매우 높고, 자립 후 재노숙을 하는 경우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종합지원센터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10월) 자립한 노숙인은 178명이며, 자립을 유지하는 인원은 154명이다. 자립을 유지하지 못한 24명은 사망 4명, 병원 입원(요양원, 요양병원) 4명, 시설입소 11명, 교도소 수감 1명, 재노숙 4명으로 전체 자립대상 중 재노숙 비율은 2.24%밖에 되지 않는다.

노숙인들은 안정된 주거지를 갖게 되면 주거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자립 생활을 하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자립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인데 자립을 하게 되면 법적인 노숙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도 매우 부족하여 자립생활자도 준 노숙상태인 노숙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자립생활자들의 삶은 거리노숙인들 안정적이었지만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생계의 곤란, 무료 급식소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식사 문제, 재난지원금 수령 및 사용 문제 등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자립생활자의 인터뷰는 종합지원센터에 방문을 요청하여 인터뷰하였다.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제외하였으며,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였다. 응답 내용을 항목 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4-17>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 개요

대상자	연령	성별	최초 노숙시기	거주형태
자립생활자 A	62세	남성	2014년 7월경	여관
자립생활자 B	62세	남성	2019년 5월경	여관
자립생활자 C	59세	남성	2022년 8월경	매입임대주택
자립생활자 D	26세	여성	2022년 8월경	고시원
자립생활자 E	37세	남성	2018년 6월경	매입임대주택
자립생활자 F	37세	남성	2019년 8월경	매입임대주택

<표 4-18>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자립생활자 A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을 못하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일을 해서 밥을 사먹었으나 코로나 이후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했다. 하지만 무료급식소 이용자가 많아져 지금은 지원받는 쌀이나 부식으로 해결하니 식사가 부실하다.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다녔지만, 코로나 이후로 병원비 문제로 무료진료소만 이용한다.
자립생활자 B	코로나 이후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전역 지하도에서 마스크 때문에 싸운 적도 있다. 코로나 이후로 병원은 잘 안가고 종합지원센터에서 약을 받아 먹고 식사도 반찬을 사서 집에서 해결한다.
자립생활자 C	코로나 이후 외출을 잘 하지 않고, 밥도 직접 조리해서 먹는다. 코로나 전보다 활동량이 줄어 밥도 적게 먹는다. 일자리가 줄어 구청에 수급신청과 자활근로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신청이 되지 않았고, 지원자가 많아 오래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립생활자 D	코로나 이후로 불안감이 커졌다. 일자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워졌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도 어려워져서 지금은 하루 한두 번 정도 직접 밥을 해먹어서 식사가 부실해지고 불규칙해졌다.
자립생활자 E	원래 혼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
자립생활자 F	코로나 전에는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코로나 이후 아파도 참고, 하루에 한끼만 먹는다.

<표 4-19>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코로나19 경험, 방역, 재난지원금 수령 관련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자립생활자 A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에 감염된 적은 없으며, 재난지원금 1회 받았다. 한번은 받지 못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신청을 안했다.
자립생활자 B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에 감염된 적은 없으며, 재난지원금은 모두 받았다. 교회, 쪽방상담소, 종합지원센터에서 방역물품을 지원받고 있다.
자립생활자 C	백신은 4차까지 접종했다. 코로나 의심증상은 있으면 괜찮아질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실제 걸렸었는지는 모르겠다. 재난지원금은 모두 받았다.
자립생활자 D	백신은 2차까지 접종했고 재난지원금도 모두 받았다. 마스크는 다○소 같은 곳에서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더러워질때까지 사용한다.
자립생활자 E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재난지원금은 모두 받았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락스에 세탁하여 재사용했다.
자립생활자 F	백신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접종하지 않았다. 의심증상이 있었으나, 집에 있다가 괜찮아져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은 모두 받았다.

<표 4-20> 조사참여자(자립생활자)-코로나19 감염 대책 및 복지서비스 욕구 응답내용

대상자	내용
자립생활자 A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보다 집이 더 청결해서 집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격리되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힘들다. 주거비를 지원받거나, 주거 유지를 위한 소득보조가 필요하다.
자립생활자 B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격리를 하고 식사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 생계가 힘들어졌는데 정부가 식사와 관련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립생활자 C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혼자 지내니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쓰러져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것 같다. 주민센터에서 가끔 안부를 확인하면 좋겠다.
자립생활자 D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에 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식사 지원이 필요하고, 방역물품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자립생활자 E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들었다. 소득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립생활자 F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치료를 받고, 생계비 지원도 받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이 우선 지원됐으면 좋겠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3명의 자립생활자 중 응답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2명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62세, 남성)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다가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을 받아 자립했다. 지금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여러 명이 팀을 짜서 건축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건축일이 감소하여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 일을 거의 하지 못한다. 코로나가 한참 일 때 건설회사 방침으로 일은 1주일에 두 번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건설일용직 일도 할 수 없었다. 당시에 나는 백신 접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코로나 전에는 가끔 대전역 광장에서 하는 무료급식을 이용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용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급

식소를 다녔는데 최근에는 급식소를 가지 않는다. 코로나가 좀 괜찮아졌다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쌀로 밥을 하고, 쪽방상당소나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부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소득이 없으니 식사가 부실해졌고, 코로나 이후 일도 하지 못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도 아프고 다리에 통증도 있다.

코로나에는 감염된 적은 없다. 의심증상은 2회~3회 있었으며 의심증상이 있어 무료진료소에서 코로나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이 나왔다. 몸살감기(두통, 열, 오한)라서 가능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여 2주 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은 4차까지 마쳤다.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백신 접종 안내 및 접종 예약을 해줘서 방문하여 접종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카드로 받았다. 대전시에서 주는 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가던 중에 아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수급자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지금 수입이 없어 많이 힘들다. 일하지 못하니, 지금 지내는 여관에서 쫓겨나지 않게 방세나 소득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보다 집이 더 청결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필요한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2) 정○○(37세, 남성)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다 주거지원을 받아 자립했으며 현재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몸이 아파서 거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다. 코로나 전에는 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몸이 아파도 집에만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잘하려고 한다. 코로나 전에는 하루 두 번 정도 집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다. 코로나로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고, 개인적인 건강상태로 식사에 변화가 온 것이다.

코로나 백신은 맞지 않았다. 정보를 몰랐던 것은 아니나 집에 있는 동안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사람도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여 백신 접종이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에 두통과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까지 이상증세가 지속되면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자고 일어나니 괜찮아져서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동 복지센터에서 안내해줘서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았다. 그런데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 제한이 있어 불편하게 느껴졌다. 영수증에 잔액 표기가 되지 않아 잔액을 확인하는 부분 또한 불편하였다. 또 받게 될지 모르지만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는 걸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같은 건 사회복지기관이나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수량이 부족했다. 지금은 마스크가 넉넉하지만 체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계비지원도 절실하다.

제2절 노숙인 시설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주목했다. 대전지역의 노숙인시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쪽방상담소가 있다. 노숙인의 지역사회복귀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시설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상이하다. 노숙인 시설 영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대전지역에 1개소 설치되어 있다. 1일 평균 50여명의 노숙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표4-21>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1>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업 현황

사업종류	세부사업
응급구호사업	현장상담(Out-reach), 고위험군노숙인위기관리사업
의료지원사업	의료지원
생활지원사업	상담/사례관리, 시설연계, 행정서비스, 물품지원
자활지원사업	취업연계, 자활프로그램, 일자리제공
주거복지사업	임시주거복지지원사업(노숙인자립지원사업), 자립화단계노숙인집중사례관리사업

*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1)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의 보호 및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거리에서 자립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를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1) 아웃리치(현장상담)의 제한

아웃리치(현장상담)는 종합지원센터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거리노숙인의 보호 즉, 거리노숙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거리노숙인과의 라포 형성을 통해 서비스 및 노숙인시설로의 흡수율을 높임으로써 사회복귀 가능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매일 4회(오전, 오후, 야간, 심야) 이상의 아웃리치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 아웃리치 외에 외부의 제보에 의한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아웃리치를 할 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장시간의 면담을 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병원 응급실의 이용제한으로 즉각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거나, 노숙인 당사자가 일시보호시설의 이용을 희망해도 즉각 연계하지 못하고 코로나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숙소를 제공한 후 연계하였다. 가장 혼란스러웠다고 응답한 것은 거리노숙인이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어도 약품 제공 이외에는 특별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거리노숙인들의 경우 유증상이 있거나, 백신 접종 후에도 보호할 수 없었다. 2022년 3월에는 감염

된 거리노숙인이 발견되었으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거리에 3일 동안 방치되었고, 종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이 도시락을 배달하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아웃리치를 하는 실무자의 업무부담과 체력적 부담,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했다. 무료급식소의 급식 중단 및 이용제한으로 인해 거리노숙인들의 식사가 어려워져 대체식(빵, 음료, 김밥, 비상식량 등)을 가지고 나가 제공하였다. 아웃리치는 2시간 정도 도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음식물, 비상약품, 비상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배낭에 메고 아웃리치를 해야 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아웃리치의 특성상 실무자의 감염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었으며, 거리노숙인이 유증상인 경우 실무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역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실무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었다.

(2)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2020년 중반부터 일자리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또한 병원(요양병원), 요양원의 면회,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던 사례관리 또한 2022년 초반까지 전화로 대체되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의 경우 입원 전 코로나 검사 등으로 인해 입원 대기시간이 길어져 이로 인해 입원을 거부하거나 노숙 지역에서 이탈하여 입원이 불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 코로나 19 현황과 방역 조치

(1) 종합지원센터 이용자 감염 현황

연도별 거리노숙인과 대전종합지원센터 실무자 감염자 수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은 2021년까지 거리노숙인 감염자가 없었으나, 2022년 들어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표 4-22>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 감염현황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계	이용자	실무자	계	이용자	실무자	계	이용자	실무자
0	0	0	0	0	0	18	11	7

(2)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조치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종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은 거리노숙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의 사용, 위생문제 등을 홍보하고 검사 및 백신 접종을 위해 거리노숙인들을 만나 설득하고, 희망하는 노숙인은 동행하여 선제검사와 백신을 접종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020년 3월 내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출입의 제한(외부에 초인종 설치),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방문자 명단작성, 방역물품(마스크 등) 제공, 주기적인 시설소독 및 공기정화, 비상연락체계(시·구-보건소-의료기관 등) 구축, 홍보물의 부착, 방역물품의 비치 및 제공, 발열·호흡기증상의 주기적인 검사, 백신접종(실무자 동행), 주기적인 PCR검사(실무자 동행)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설여건에 맞게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증상여부 확인을 통해 유증상의 경우 실무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노숙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일~3일 정도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제공하였다. 시설 구조상 격리공간은 마련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이 발생하면 시설 일제 소독, 프로그램 참여 중단, 실무자 및 이용자 PCR검사 등을 실시했다. 거리노숙인이 감염되었을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받도록 조치하였다.

2022년 10월 현재에는 감염의심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확인되는 경우 병원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을 위해 이용자 중 일자리 참여자, 전체 실무자 전원이 신속항원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가 폐쇄된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자립생활자의 경우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치료를 하고 음식물 및 생필품을 제공한다. 희망자의 경우 병원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거리노숙인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에 격리치료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3) 이용자의 재난지원금의 수령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들 중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7명, 대전시 재난지원금이 3명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등록되어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대전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받아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주소가 불분명하고 행정기관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 코로나19 정책 및 지방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대전시, 해당 구청)와의 협조는 비교적 잘 되었으나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잘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있었으나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21년까지 거리노숙인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등 선제 조치를 잘 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부족과 급식의 급식 제한 조치로 인한 거리노숙인 급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웠다고 응답했다.

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이후 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으로 첫째,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둘째,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증가, 셋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불가능으로 응답했다.

시설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안정된 격리시설의 마련, 둘째, 방역 및 소독 추가지원, 셋째, 보건 관련 인력의 확충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전시의 노숙인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급식문제, 둘째,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의 구축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초~중반에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매우 부족했으나 그 이후로는 부족한 물품은 없었다.

2. 노숙인일시보호센터

일시보호센터는 대전지역에 1개소 설치되어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표4-23>의 내용과 같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일시보호센터의 입소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져 노숙인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거나, 긴급지원을 통해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즉각 주거지원을 통하여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이용자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사료된다.

<표 4-23> 대전노숙인일시보호센터 최근 5년간 이용 실인원

(단위: 명)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10월
이용자 수	313	247	123	105	105

* 대전광역시일시보호센터 내부자료

1) 일시보호센터의 역할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중간단계 또는 노숙 위기에서 벗어난 노숙인들의 초기 주거 형태로 볼 수 있다. 일시보호시설은 단기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입소 과정이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거리노숙인에게 식사와 잠자리는 매우 중요한 생존 요소이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를 떠나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노숙인의 사회복귀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숙인 중에는 근로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에 한 번 빠지고 나면 노숙의 위험에서 탈출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안정된 주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노숙인이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남기철, 노숙인과의 회복지실천.2007)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거리에서 즉각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노숙 위험에 있는 모든 대상에게 개방되어 있다. 또한 일시보호를 기본으로 노숙인 자활시설 및 재활시설 입소연계,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및 심리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위한 초기 단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코로나 19 이후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의 변화

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뿐 아니라 노숙위기계층이 거리노숙으로 전락하기 전 흡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자격 등의 제한기준이 매우 낮은 시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입소절차와 감염위험도의 증가 등의 이유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 전 코로나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면서 그 접근성이 낮아졌다. 2020년부터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수가 2019년에 비해 50% 감소했다.

(1) 입소 과정의 변화

일시보호센터는 노숙인 또는 노숙위기계층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절차 또한 간단한 상담과 3일 이내 건강검진이 전부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야간 및 새벽에 찾아오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대상자를 경찰 등 관공서에서 보호를 의뢰하는 사례도 많았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코로나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노숙인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으며,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음날 주간에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검사결과가 나온 후 이용이 가능했다. 2020년 12월부터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임시주거비지원사업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임시숙소 지원비’로 1일~3일(주말 또는 휴일)까지 숙박 시설을 제공하였다.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임시로 숙박시설을 제공한 인원은 연인원 334명(2020년 9명, 2021년 169명, 2022년 10월까지 156명)이다. 일시보호센터 이용 전 임시숙소 지원으로 숙박 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2) 급식서비스의 변화

일시보호센터는 코로나19 이전 1일 2식(조식·석식)의 급식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무료급식소가 급식을 중단하거나 도시락 제공으로 인한 인원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점심으로 컵라면, 빵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힘든 것이 점심으로 제공하는 컵라면 등 대체식은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후원품이 부족하면 제공을 하지 못했다.

(3) 의료서비스의 변화

일시보호센터 이용자의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노숙인 중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시보호센터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3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종합지원센터, 무료진료소, 병원 등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건강검진과 병원 진료 등 의료서비스가 중단된 적은 없으나, 응급실 이용의 제한, 체온이 높은 경우 병원 진료의 제한,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제한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및 사례관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의 경우 입원에 필요한 절차(PCR 검사 결과 이후)가 추가해지면서 입원 대기 시간이 길어져 이탈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4) 프로그램의 변화

일시보호센터는 일시보호기능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코로나19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진행되던 특별급식, 무료진료 행사, 절기행사(크리스마스, 명절 등)등이 중단되었다.

3) 코로나 19 현황과 방역 조치

(1)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감염현황

연도별 일시보호센터 감염자 수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은 2021년까지 감염자가 없었으나, 2022년 들어 4명의 실무자가 감염되었다. 하지만 시설 내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표 4-24> 대전노숙인일시보호센터 코로나19 감염현황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계	이용자	실무자	계	이용자	실무자	계	이용자	실무자
0	0	0	0	0	0	4	0	4

(2)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조치

일시보호센터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020년 3월 내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출입문의 통제(외부에 초인종 설치),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방문자 명단작성, 방역물품(마스크 등) 제공, 주기적인 시설소독 및 공기정화, 비상연락체계(시·구-보건소-의료기관 등) 구축, 홍보물의 부착, 방역물품의 비치 및 제공, 발열·호흡기 증상의 주기적인 검사, 침대 사이 가림막의 설치, 식탁에 아크릴 가림막 설치, 백신의 접종, 주기적인 선제검사-PCR검사, 임시 격리공간은 마련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와 시설여건에 맞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임시 격리공간은 건물 구조상 격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어 의심자,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여성 노숙인에게 임시숙소(숙박 시설)를 제공하고 여성잠자리를 격리장소로 활용 계획을 세웠다(실제 의심 환자 및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이용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일 이상 일시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자가 없어 격리치료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현재에는 감염 의심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 시설 내 격리 이후 전문가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월 3일부터 종사자의 선제검사가 중단되었고,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에서의 PCR 검사가 중지되어 신규입소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기관예산으로 병원에서 전문가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4-25> 대전노숙인일시보호센터 코로나 검사 방법 및 주기

년도	대상	검사방법(장소)	검사주기
2020년	노숙인	PCR검사(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입소 전
	실무자	PCR검사(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주1회
2021년	노숙인	PCR검사(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입소 전
	실무자	PCR검사(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주1회
2022년 8월까지	노숙인	전문가신속항원검사(병원), 자가검진 키트(시설 자체)	주1회
	실무자	자가검진 키트(시설 자체)	주1회

* 대전광역시일시보호센터 내부자료

4) 이용자의 재난지원금 수령

2022년 9월 기준,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중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노숙인은 정부 재난지원금 2명, 대전시 재난지원금이 1명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되어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대전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받아 본인이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5) 코로나 19 정책 및 지방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대전시, 해당구청)와의 협조는 잘되지 않았으며, 노숙인에 대한 대응 또한 잘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의 문제, 시설 이용과정에서 시설 이용 전 격리시설의 부재, 열악한 시설로 인해 시설 내 격리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감 등이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이후 시설종사자의 어려움으로 첫째,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둘째,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증가, 셋째, 업무량의 증가로 응답했다.

시설 차원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안정된 격리시설의 마련, 둘째, 식사제공

의 문제, 셋째, 수면실에 독립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전시의 노숙인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급식에 있어 점심 급식 허용 및 급식비 단가 상향, 둘째, 격리시설 구축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초~중반에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부족했으나 2020년 중반 이후 지방정부 및 외부의 지원, 후원 등이 많아 부족한 물품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3. 노숙인 재활시설

대전지역에는 노숙인재활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정원 170명에 2022년 8월 말 현원 114명(남성 75명, 여성 39명)이 생활하고 있다.

1) 노숙인 재활시설의 역할

노숙인 재활시설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 코로나 19 이후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변화

(1) 신규입소 및 외출외박면회 서비스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신규입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후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감염예방을 위해 외출·외박면회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2) 서비스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조치의 부담이 늘어난 것 이외에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는 시설 차원에서 방역지침에 근거하여 최대한 생활자의 시설 내 일상생활 및 서비스의 제한이나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3) 코로나 19 현황과 방역 조치

(1) 재활시설 생활자 감염현황

노숙인 재활시설은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대상자 비율이 높아 코로나19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연도별 감염자 수는 다음과 같다. 2021년까지 감염자수가 없었으나 2022년 8월까지 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생활인 94명(82%)이 감염되었으며, 시설 종사자의 55%가 감염되었다. 2022년 3월 5일부터 3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기도 했다.

<표 4-26> 노숙인 재활시설 코로나19 감염현황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계	이용자	실무자	계	이용자	실무자	계	이용자	실무자
0	0	0	0	0	0	109	94	15

(2)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조치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방문자 명단작성, 방역물품(마스크 등) 제공, 주기적인 시설소독 및 공기정화, 비상연락체계(시·구-보건소-의료기관 등) 구축, 홍보물의 부착, 방역물품의 비치 및 제공, 발열·호흡기 증상의 주기적인 검사, 백신접종, 주기적인 PCR검사 등을 실시, 격리 공간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다.

다른 시설에 비해 별도의 화장실이 있는 입소대기실을 격리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감염의심자 또는 감염자 격리를 위해 활용하였다. 코로나19 검사는 2020년에는 원내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주 2회 실시하였다. 현재는 방역조치 해제로 인해 의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생활인 중 감염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전문가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박자의 경우 원내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의심자는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며, 동행한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검사비용은 기관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4) 생활자의 재난지원금의 수령

재활시설 생활자들의 재난지원금은 시설에서 일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주로 지역화폐(카드)로 수령 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 하기도 하였다.

5) 코로나 19 정책 및 지방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대전시, 해당구청)와의 협조는 보통, 노숙인에 대한 대응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노숙인 시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시설 자체적인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였다고 응답했다.

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이후 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으로 첫째, 생활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증가, 둘째,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셋째, 업무량의 증가로 응답했다.

시설차원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생활지원 관련 인력의 확충 필요, 둘째, 보건 관련 인력 확충 필요, 셋째, 물품지원(마스크 등 보건물품 관련)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전시의 노숙인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타 기관과 공동대응체계의 안정적 구축, 둘째, 감염병 관련 매뉴얼의 내실화로 응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주무관청의 지원확대 필요(코호트 격리시 지원물품, 지원인력 등), 지원물품(마스크, 소독제, 일회용품, 종량제봉투, 도시락, 물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은 대전지역에 4개소 설치되어 있다(성바우로의집, 야곱의집, 울안공동체, 파랑새동지). 동구 지역에 3개소, 중구 지역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4-27>을 제외하고 자활시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A, B, C, D 자활시설로 구분하였다. 이는 응답에 참여한 자활시설에 따라 응답을 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시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 4-27>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자 수(2022년 8월)

(단위: 명)

시설구분	성바우로의집		야곱의집		울안공동체		파랑새등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생활자 수	16	11	25	19	52	38	18	15

1) 노숙인 자활시설의 역할

노숙인 자활시설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대전지역의 노숙인 자활시설은 정원 16인의 소규모 시설부터 52인의 중형 규모의 시설까지 있으며, 4개 시설 모두 남성시설이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실무자 수가 적고 24시간 운영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코로나 19 이후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변화

코로나19 이후 시설 입 전 코로나 검사 실시, 프로그램의 축소 진행 또는 중단, 외출 자제 권고, 식수 인원 제한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3일 이상 외박을 할 때 코로나 검사 이후 시설이용을 하도록 하거나 병원 진료 전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진료절차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표 4-28>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별 서비스 제공의 변화

시설	내용
A자활시설	외출 자제 권고, 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
B자활시설	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
C자활시설	입소시 코로나 검사, 상담자제, 급식시간 이원화, 식당 칸막이 설치, 실내프로그램 축소 진행, 실외 프로그램 연기 및 취소.
D자활시설	외출자제, 3일 이상 외박시 코로나 검사 실시, 병원 외래진료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

3) 코로나 19 현황과 방역 조치

(1) 자활시설 생활자 감염현황

자활시설의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표4-29>와 같다.

<표 4-29>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 감염현황

(단위: 명)

	성바우로의집			야곱의집			울안공동체			파랑새동지		
	계	생활자	종사자	계	생활자	종사자	계	생활자	종사자	계	생활자	종사자
2020년	0	0	0	0	0	0	0	0	0	0	0	0
2021년	0	0	0	0	0	0	0	0	0	0	0	0
2022년	9	5	4	3	0	3	21	12	9	7	4	3

(2) 자활시설의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조치

코로나로 인한 자활시설의 방역조치는 정부의 지침대로 진행되었다. 감염관리 책임자의 지정, 방문자 명단 작성, 시설 소독 및 공기정화, 비상연락망의 구축, 홍보물의 부착 및 교육, 방역물품의 제공, 정기적 발열 체크 및 증상의 점검, 주기적 코로나 검사, 격리 공간의 설치 등이다.

의무적 코로나 검사가 해제되고 선별진료소가 폐쇄된 이후 2개 시설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시설은 자가 검진 키트로 매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 자체 격리 또는 숙박시설에 격리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폐쇄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일제소독, 제한급식, 밀접접촉자 격리, 전원 PCR 또는 자가 검진키트 검사, 종사자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검사비용 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시설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격리공간의 경우 자활시설의 환경적 열악함으로 인해 별도의 격리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바우로의집의 경우 평상시 프로그램실(별도의 화장실 있음)로 활용하는 공간을 격리실로 활용했고, 야곱의집의 경우 휴게실(공동 화장실 사용)을 격리실로 사용하였다. 울안공동체는 시설 내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제공하였

으며, 파랑새둥지는 생활실(공동화장실) 1실을 비워 격리실로 활용했다.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며, 시설에서 일괄 구매하기에도 어려워 매우 부족했으나 현재는 부족한 것이 없다.

4) 자활시설 생활자의 재난지원금 수령

자활시설에서 재난지원금은 수령 받은 노숙인은 <표4-30>과 같다. 야곱의집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안내하고 개인이 수령하도록 하여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활시설의 경우 입소한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주소지를 전입할 수 있어 생활자에 따라 시설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타지역으로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도 있다. 간혹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주민등록 복원을 희망하지 않는 생활자도 있어 생활자 중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표 4-30>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재난지원금 수령 현황

(단위: 명)

	성바우로의집	야곱의집	울안공동체	파랑새둥지
정부재난지원금	10	-	39	14
대전시재난지원금	10	-	38	13

5) 코로나19 정책 및 지방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

지방정부(대전시, 관할구청)와의 협조는 비교적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응매뉴얼의 경우 2개 시설에서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했다. 코로나19 대응매뉴얼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광범위적 대응매뉴얼로 노숙인 시설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나 시설에 따라 다른 단체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고 응답했다.

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

코로나 19로 인한 종사자가 느낀 어려움은 <표4-31>와 같다. 4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표 4-31>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별 서비스 제공의 변화

시설	내용
A자활시설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인 관리 감독의 강화, 물품 부족에 대한 우려
B자활시설	생활인 관리감독의 강화, 지켜야 할 지침의 증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 불가
C자활시설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인 관리감독의 강화, 업무량의 증가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차원의 개선되어야 할 요구사항으로 <표 4-32>과 같이 응답했다.

<표 4-32>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차원 개선 요구사항

시설	내용
A자활시설	추가 근무비 지원, 물품지원(생필품), 방역 및 소독 추가지원
B자활시설	물품지원(방역), 생활지원 관련 인력 확충, 안정된 자가격리 시설 마련
C자활시설	안정된 자가격리 시설 마련, 수면실 독립 공간 확보, 도시락 구입

노숙인 자활시설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표4-33>과 같이 응답했다.

<표 4-33> 대전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적 개선 요구 사항

시설	내용
A자활시설	주거지원 및 지역정착 지원 확대, 감염병 검사비 지원
B자활시설	공공병원 확충, 자가격리 시설 구축 지원
C자활시설	자가격리시설 구축 지원, 시설 내 보건인력 배치

5.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들에게 있어 무료급식은 거리에서 지내면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적 조건이다. 거리노숙인들 중 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노숙인시설의 이용 또는 입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무료급식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숙인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무료급식소는 노숙인 뿐 아니라 지역 내 취약계층인 쪽방생활자, 지역 노인, 식사해결이 어려운 지역 빈곤층 등 다양한 대상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들의 생존문제와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현재 대전지역의 무료급식은 실내 급식과 실외급식을 하는 단체가 있다[표4-5-3]. 실내 급식소의 경우 새나루공동체와 성모의집은 노인무료급식소로 인가받은 시설이지만 대전역 인근에 있어 노숙인 및 쪽방생활자 등 지역의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눔의집, 은총섬김회, 밥사랑공동체는 후원을 통해 운영하는 미지원 시설로 노숙인을 포함한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실외급식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종교단체는 대전역 동광장, 서광장에서 노숙인을 포함한 지역 취약계층에게 정기적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급식은 일시보호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 생활자를 위한 급식비와 종합지원센터에서 동절기(11월~2월) 거리노숙인 급식비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김밥, 빵, 음료 등을 야간(23:00~01:00)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료급식소를 A, B, C 무료급식소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전후와 현재의 대전지역 무료급식 현황은 <표4-34>, <표4-35>, <표4-36>과 같다.

<표 4-34> 코로나19 이전 대전지역 노숙인 무료급식 현황(2018년 8월)

구분	단체명	급식현황					비고
		횟수/일정	시간	내용	급식량	대상	
실 내	성 모 의 집	주5회(월~금)	12:00	중식	180인분	65세이상, 쪽방, 노숙인	
	새 나 루 공 동 체	주4회(월화목금) 주2회(토일)	17:00 12:00	석식 중식	190인분	65세이상, 쪽방, 노숙인	
	나 눔 의 집	주5회(화~토) 주1회(토)	06:30 18:00	조식 석식	55인분	쪽방, 노숙인	
	은 총 섬 김 회	주5회(화수목금일)	12:00	중식	200인분	"	토요일 제공안함
실 외	벤 엘 의 집	주2회(수일)	20:00	석식	200인분	쪽방, 노숙인	
	주 품 의 교 회	주3회(월목금)	17:00	석식	-	"	
	5K운동본부충청지부 (빨 간 조 끼)	주1회(목)	17:00	석식	100인분	"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주1회(일)	12:00	중식	300인분	"	
	증약기도원 (옥 천)	주1회(토)	16:00	석식	100인분	"	
	희망나눔지원단	주1회(토)	12:00	중식	100인분	"	

* 대전광역시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4-35> 코로나19 이후 대전지역 노숙인 무료급식 현황(2020년 9월)

구분	단체명	급식현황					비고
		횟수/일정	시간	내용	급식량	대상	
실 내	성 모 의 집	주5회(월~금)	12:00	중식	200인분	65세이상, 쪽방, 노숙인	도시락(9/21부터)
	새 나 루 공 동 체	주4회(월화목금) 주2회(토일)	17:00 12:00	석식 중식	193인분	65세이상, 쪽방, 노숙인	도시락(9/21부터)
	나 눔 의 집	주5회(화~토)	07:00	조식	55인분	쪽방, 노숙인	도시락
	은 총 섬 김 회	주4회(화~금)	12:00	중식	200인분	"	중단
	밥 사 랑 공 동 체	주3회(월, 목, 금)	17:00	석식	150인분	쪽방, 노숙인	물과 원음료, 빵 등
실 외	벤 엘 의 집	주2회(수, 일)	20:00	석식	200인분	쪽방, 노숙인	컵라면 진행
	5K운동본부충청지부 (빨 간 조 끼)	주1회(목)	17:00	석식	100인분	"	중단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주1회(일)	12:00	중식	300인분	"	중단
	증약기도원 (옥 천)	주1회(토)	16:00	석식	100인분	"	중단
	희망나눔지원단	주1회(토)	12:00	중식	100인분	"	중단

* 대전광역시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4-36> 2022년 9월 대전지역 노숙인 무료급식 현황

구분	단체명	급식현황					비고
		횟수/일정	시간	내용	급식량	대상	
실 내	성 모 의 집	주5회(월~금)	12:00	중식	150인분	65세이상, 쪽방, 노숙인	도시락 진행
	새 나 루 공 동 체	주4회(월,화,목,금) 주2회(토일)	17:00 12:00	석식 중식	200인분	65세이상, 쪽방, 노숙인	도시락 진행
	나 눔 의 집	주5회(화~토)	07:00	조식	80인분	쪽방, 노숙인	도시락 진행
	은 총 섬 김 회	주4회(화~금)	12:00	중식	350인분	"	물품지원(빵제공)
	밥 사 랑 공 동 체	주3회(월,목,금)	17:00	석식	150인분	쪽방, 노숙인	도시락 진행
실 외	벤 엘 의 집	주2회(수,일)	20:00	석식	200인분	쪽방, 노숙인	일반급식제공
	5K운동본부충청지부 (빨 간 조 끼)	주1회(목)	17:00	석식	100인분	"	도시락 진행
	대전공동복지자원봉사연합회	주1회(일)	12:00	중식	300인분	"	일반급식제공
	증약기도원(옥천)	주1회(토)	16:00	석식	100인분	"	일반급식제공
	희망나눔자원봉사봉사단	주1회(토)	12:00	중식	100인분	"	중단

* 대전광역시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대부분 노숙인들은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노인급식소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또는 대전역 광장 등 실외에서 정기적인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제공하는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소 및 급식서비스는 10개에서 5개로 줄었으며, 대체식(빵 등)을 제외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3개소로 줄었다.

무료급식소 대상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급식소와 민간운영 급식소의 응답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1) 코로나19 전후 급식 인원의 변화

조사 대상 무료급식소 중 2개소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급식소이며, 1개소는 노인 무료급식소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 급식대상은 3개소 모두 노인, 쪽방생활자, 노숙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무료급식소는 코로나 19 전후 급식대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급식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 전후로 무료급식소의 평균 급식인원의 변화는 <표4-37>와 같다.

<표 4-37> 코로나19 전후 평균 급식 인원 변화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전 평균급식 인원	코로나19 후 평균급식 인원	22년 10월 평균급식 인원
A 급식소	180	220~350	190
B 급식소	200	300	330
C 급식소	70	90	90

조사대상 3개소 모두 코로나19 이후 급식 인원이 대폭 상승하였다. A 급식소의 경우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전역 인근 민간 운영 무료급식소의 급식이 중단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급식을 하는 급식소에 대상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상회복을 통해 무료급식소의 급식이 다시 시작되고 있으나, 급식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후원에 의존하는 미지원 급식소들이 급식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서비스의 변화

조사대상 무료급식소의 경우 모두 실내급식을 통해 조리식을 제공하였으나 코로나 19 이후 도시락 및 대체식(빵 등)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전후로 무료급식소의 급식 내용 및 급식 장소의 변화는 <표4-38>과 같다.

<표 4-38> 코로나19 전후 급식 내용 및 급식 장소 변화

(단위: 명)

기관명	코로나19 전		코로나19 후		22년 9월	
	급식내용	급식장소	급식내용	급식장소	급식내용	급식장소
A 급식소	조리식	실내	도시락	실외	도시락	실외
B 급식소	조리식	실외	빵	거리급식	빵	거리급식
C 급식소	조리식	실외	도시락	실외	도시락	실외

조리식에서 도시락으로의 전환은 무료급식소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조리식에 비해 도시락을 제공하게 되면 도시락, 숟가락, 젓가락, 비닐 포장 봉투 등의 1회용품 구입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 급식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B급식소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실내급식(조리식)을 중단하고 후원받은 빵을 제공하고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의 중단

조사대상 무료급식소 중 A급식소는 대전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무료급식소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이용하는 곳 중 하나로 노숙인, 쪽방주민, 노인, 지역주민 등이 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A급식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 급식을 중단하였다. 당시의 조치는 대전시의 행정집행에 의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급식소의 급식중단으로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긴급히 비상식량(비화식 발열도시락)을 구입하여 해당기간 동안 거리노숙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급식 인원의 증가 및 급식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지역 노인(65세 이상) 이외에는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A무료급식소와 종합지원센터가 협의하여 급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리노숙인에게 식사권을 발급하여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종합지원센터에서 외부기관(대전시 연계)에서 후원받은 급식지원(김밥)을 급식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B급식소의 경우에도 급식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급식 횟수가 주 4회에서 2회로 줄었으며, 조리식에서 후원받은 빵 등의 대체식으로 전환되었다. C급식소 또한 급식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도시락 제공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으로 종합지원센터에 급식에 필요한 도시락 용기 또는 쌀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그 외에 코로나19 이전에 학교 급식실이나 구청 등 외부 단체에서 지원받았던 반찬 등의 지원이 끊겨 후원(종교단체 헌금) 등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급식소는 어려움을 겪었다.

4) 코로나19 대응조치

(1)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대응 조치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방문자 등 명단의 작성, 시설소독·공기정화, 홍보물부착, 마스크 등 감염예방 물품의 비치 및 제공, 발열·호흡기 증상의 주기적인 점검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자체와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는 밀접하게 진행되기 어려웠으며,

다른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숙인시설에 비해 시설 인가를 받지 않아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방역에 있어서도 자체방역(소독 등)으로 대처하거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2) 방역 물품 공급의 문제

노인급식소로 지정된 A급식소의 경우 특별히 부족한 물품은 없었다고 답했으나, BC급식소는 마스크, 체온계, 검사키트 등의 장비가 부족해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노숙인시설 또는 인가받은 시설에는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마스크 등의 방역 장비의 지원이 있었으나 미인가 시설에는 방역물품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3)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정부와의 협조체계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전시 및 해당 구청과의 협조체계를 묻는 질의에 조사에 응답한 3개 무료급식소의 대답은 차이가 있었다. 노인급식소로 인가받은 A급식소의 경우 정부의 매뉴얼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며, 협조도 비교적 잘 되었으며 매뉴얼도 유용했다고 답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2개의 급식소 중 B급식소는 구청에서 매뉴얼을 받았고, 협조는 잘 이루어졌으나 대전시와는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C급식소의 경우에는 매뉴얼조차 받지 못했으며 지원이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BC급식소의 경우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 종사자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또한 인가받은 시설과 민간 운영 시설의 응답이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민간운영 급식소의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통해 급식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으로 <표4-39>과 같이 응답했다.

<표 4-39>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시설 종사자의 어려움

시설	내용
A급식소	코로나19로 인한 변경사항 없음
B급식소	1.업무량의 증가 2.감염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3.이용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증가 4.물품 부족에 대한 우려
C급식소	1.이용인과의 관계단절의 문제 2.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 대한 문제 3.물품 부족에 대한 우려 4.지켜야 하는 지침의 증가로 인한 문제 5.기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6) 코로나19 관련 시설 차원의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표 4-40> 코로나19 관련 급식 시설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시설	내용
A급식소	1.추가근무에 따른 급여지원 필요 2.비대면 급식 서비스 개발 필요 3.물품지원(방역물품 등) 필요 4.도시락 포장 재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 필요
B급식소	1.방역 및 소독 등 지원 필요 2.보건 관련 인력의 확충 필요 3.비대면 급식 서비스 개발 필요
C급식소	1.물품지원(생필품, 방역물품 등) 필요 2.방역 및 소독 등 지원 필요 3.보건 관련 인력의 확충 필요 4.생활지원 관련 인력의 확충 필요 5.추가 근무에 따른 급여지원 필요 6.비대면 급식 서비스 개발 필요

7) 코로나 19 유행 관련 노숙인 급식서비스 개선 사항

A급식소의 경우 노인급식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찾아오는 노숙인들을 거절할 수 없어 후원에 의존해 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식 인원의 증가와 급식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1년에는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급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무료급식소의 급식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은 <표4-41>과 같다.

<표 4-41> 코로나19 관련 급식시설별 급식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시설	내용
A급식소	노숙인 전담 급식소 설치 필요
B급식소	철저한 방역 및 소독 지원
C급식소	물품지원, 주거지원 등 확대

8)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전시의 노숙인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관련 무료급식소의 대전시에 대한 노숙인 정책 개선 요구사항은 <표4-42>와 같다.

<표 4-42> 코로나19 관련 급식시설별 대전시 노숙인 정책 개선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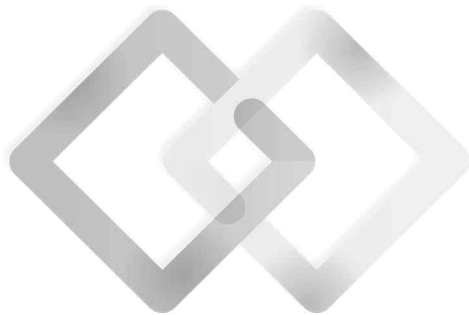
시설	내용
A급식소	대전역 인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쪽방, 독거어르신 등을 위해 지원센터, 상담소, 진료소, 노숙인쉼터, 자활후견기관, 무료급식소 등을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필요
B급식소	실내급식 중단에 따른 불편을 지원할 충분한 대책 필요, 철저한 규제보다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C급식소	정부지원 확대 필요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노숙인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극단화된 빈곤 상황을 겪는 집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집단이다. 코로나19는 실직 및 노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코로나19 대응책이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급식 등)의 제한적 조치는 노숙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방역 정책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재활시설 생활자, 자활시설 생활자, 자립생활자의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노숙인 시설은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 재활시설, 자활시설, 무료급식소를 조사하였다.

노숙인들은 노숙의 원인부터 개인적 특성과 삶의 방식까지 상이하다. 노숙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거리 노숙부터 시설, 자립생활까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1. 대상별 조사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에 노숙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을수록, 즉 거리노숙인 > 일시보호센터이용자 > 자활시설 생활자 > 재활시설 생활자 순으로 생계(식사, 잠자리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제한,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등의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 그 욕구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조사결과 인터뷰에 응한 노숙인들 중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리노숙인으로 갈수록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일자리와 생계의 문제를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고, ‘일을 해야 집도 얻고 밥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들이 겪은 변화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의 상실로 인한 생계의 곤란이다. 코로나19 이후 노숙을 시작한 조사참여자들의 경우 구직의 어려움 - 수입의 감소 - 생계의 위협 - 주거 상실 및 노숙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는 일용직 노동시장 및 단순노동에 집중되는 노숙인들의 노동영역의 특성상 노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일자에 대한 욕구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모든 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절실한 문제였다.

둘째, 사회적 지원망의 부족이다.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 중 시설생활자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선제검사 및 백신 미접종, 주민이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기 어렵다거나, 집단으로 생활한다는 등의 오해를 하고 있었다. 또한 주소지의 문제로 인한 재난지원금 미수령 및 사용 불가의 문제 및 수급자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노숙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주거지원, 생계지원의 필요성이다. 노숙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생계문제에 직면하였고, 향후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또는 주거비 지원, 일자리 확보를 통한 수입의 증가 또는 생계지원의 확대를 희망하였다.

넷째, 격리치료시설의 절대적 필요성이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대다수는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등의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였다.

1) 거리노숙인

거리노숙인들은 노숙 기간에 따라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및 욕구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장기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 이후 노숙을 시작한 응답자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나 영향력에 대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거리노숙인은 일자리와 생계(식사, 생계비)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접근성의 문제와 더불어 노숙인들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등 코로나에 대한 인식 부족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병과 관련해서는 병원 이용 등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이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병원이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와 주거지(노숙 지역)가 달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2) 일시보호센터 이용자

일시보호센터 이용자들은 시설의존도가 높아 식사, 잠자리, 방역,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질병 치료 등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스트레스의 증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생계의 고통, 재난지원금 수령의 불편 등의 어려움이 컸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및 욕구는 일시보호센터 이용 기함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거리노숙의 경험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노숙을 하게 되었거나 거리에서 생활한 기간이 오래 되었을수록 굶거나 최소한의 식사로 연명하는 정도로 끼니 해결의 어려움이 극심하였다. 그로 인해 생계문제에 대한 욕구가 다른 노숙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거리노숙을 경험하지 않고 노숙 위기 상황에서 일시보호센터를 바로 이용하게 된 응답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등 자립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3) 재활시설 생활자

재활시설 생활자들은 시설 생활 기간의 단기, 장기에 상관없이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및 욕구는 거의 유사했다. 재활시설 생활자 역시 시설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식사, 잠자리, 방역,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질병 치료, 재난지원금 수령 등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외출·외박의 제한, 거리두기 의무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4) 자활시설 생활자

자활시설 생활자들 역시 시설의존도가 높아 식사, 잠자리, 방역,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질병치료 등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일자리의 감소, 재난지원금 수령의 문제, 스트레스 증가, 감염 시 격리치료 등의 문제로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시설에서의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및 욕구는 유사했으나, 시설 입소 시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전에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의 경우 식사 등 생활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나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입소한 대상자의 경우 생계, 방역, 일자리 등 전반적인 문제 및 욕구가 일시보호센터 이용자와 유사했다.

5) 자립생활자

자립생활자들은 거리노숙인이나 시설생활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나머지 주거상실의 위협, 생계의 문제(무료급식소 이용제한으로 인한 식사 해결의 어려움)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자립생활자들은 자립 기간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의 건강문제, 수급 여부, 근로 능력 등에 따라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으며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자립생활자들은 시설생활자보다 코로나 이후 외부와의 단절이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 시설별 조사 내용 요약

노숙인 시설별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노숙인 시설은 시설 유형별 서비스 내용은 물론 거주 형태에 따라 노숙인들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의 노숙인으로 보기 힘들다. 각 유형별 노숙인시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변화에 대한 요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실무자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의 문제는 유사했다.

노숙인 시설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변화와 어려움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무자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스트레스의 증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및 대상자 관리, 서비스 영역(보건 및 방역)의 확대에 의한 업무의 부담, 감염병 상황

에서의 실무자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의 미흡, 인력의 부족, 보건인력의 부재, 적절한 대응의 미흡한 조치상황 등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아웃리치, 상담 및 프로그램의 중지 또는 제한적 시행, 출입·면회·외박의 통제, 급식소의 폐쇄 및 급식방법의 변화(조리실에서 도시락으로) 등 제공하던 서비스가 중단 또는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거리노숙인으로 갈수록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노숙인들의 생계문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으나, 시설 내 방역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어 서비스 대상자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노숙인에게 적절한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사회적인 방역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반에도 방역대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거리노숙인 및 노숙인시설에 적절한 대책은 미흡하였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노숙인들을 위한 격리시설, 감염된 노숙인을 위한 격리치료시설, 노숙인 급식시설의 설치 등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에 대한 관리 부담 증가, 실무자의 안전장치 미흡, 코로나19 검사 후 입원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입원 거부 등의 문제, 거리노숙인이 감염되거나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격리의 문제, 입원 치료중인 사례관리 대상자의 면회 및 지원 불가의 문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령의 어려움, 급식의 문제, 스트레스 증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려움, 보건인력의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의 안정적인 급식과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 노숙인일시보호센터

코로나19 검사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면서, 숙박시설 제공에 따른 예산 증가의 문제, 이로 인해 숙박시설에 대기하다가 이탈하는 대상자의 발생, 1일 2식 제공으로 점심

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야 하지만 급식소의 폐쇄 및 급식 제한으로 인한 급식의 문제, 응급실 이용 및 정신질환 노숙인이 입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이 탈자 발생의 문제, 실무자들의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이용자 관리 감독 업무 및 업무량의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안정된 격리시설, 규칙적인 급식 지원의 확대, 수면실 독립공간 확보, 점심 급식 허용 및 급식비 단가의 상향, 격리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 노숙인재활시설

외출·외박면회의 중단, 시설 내 집단 감염의 문제, 생활인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의 증가, 감염 위험으로 인한 실무자의 스트레스 증가, 이에 따른 행정, 방역 등의 업무량의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생활 지원 관련 인력의 확충, 보건 관련 인력확충, 물품 지원(마스크 등 보건물품 관련), 타 기관과 공동대응체계의 안정적 구축, 감염병 관련 매뉴얼의 내실화, 주무관청의 지원 확대(코호트 격리 시 지원 물품, 지원인력 등), 지원 물품(마스크, 소독제, 일회용품, 종량제봉투, 도시락, 물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 노숙인자활시설

프로그램의 축소 진행 및 중단, 진료절차의 어려움, 주소지 문제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령의 문제, 노숙인 시설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코로나19 대응매뉴얼, 실무자의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생활인 관리 감독의 강화, 물품 부족, 지켜야 할 지침의 증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불가, 업무량의 증가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추가 근무비의 지원, 물품 지원(생필품, 방역물품), 생활 지원 및 보건인력 확충, 방역 및 소독의 추가지원, 안정된 자가격리시설, 수면실 독립공간 확보, 도시락 구입지원, 주거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의 확대, 검사비 지원, 공공병원 확충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5) 무료급식소

급식 중단 문제, 급식 인원 상승 및 도시락 제공 등으로 인한 급식비 증가와 후원의 감소, 방역물품의 부족, 방역 조치의 미흡, 지방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업무량의 증가,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물품의 부족, 이용자와의 관계 단절의 문제, 적절한 서비스의 불가능, 지켜야 할 지침의 증가, 기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추가 근무에 따른 급여지원, 비대면 급식서비스개발 필요, 물품(방역물품 등) 지원, 도시락 비용 지원, 보건 관련 인력 지원, 방역 및 소독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었으며, 노숙인 전담 급식소의 설치, 실내 급식 중단에 따른 충분한 대책, 정부 지원의 확대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센터-상담소-진료소-노숙인 쉼터-자활지원센터-무료급식소 등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이 노숙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절실하다고 응답하였다.

제2절 제언

1. 방역 지원

1) 감염병 대비 격리시설의 설치

노숙인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노숙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의 문제는 물론 생계의 문제에 직면한다. 코로나19이후 일반 시민들은 백신접종 및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택에서 격리할 수 있었지만, 노숙인들은 격리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는 거리노숙인과 시설생활자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노숙인 자활시설 중에서는 시설 내 격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의심증상 및 감염자가 발생하면 숙박시설을 얻어 격리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도 있었다. 현재는 확진자의 경우 병원입원이 가능하지만, 노숙인들의 경우 의심 증상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외에도 결핵 등 감염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격리치료 공간이 없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거리노숙인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숙인들과 시설 실무자들 대

다수가 노숙인들이 감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격리치료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했다. 이는 노숙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격리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열악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생활자 등)에게도 필요하다.

2) 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에 특화된 대응매뉴얼의 개발

노숙인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무주거 상태인 거리노숙부터 자립생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역할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개입방법 또한 다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대응매뉴얼에는 이러한 노숙인들의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은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다양한 노숙 현장에 맞는 대응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2.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노숙인 등 취약계층 무료급식시설 설치 및 지원

주거 상실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밥을 사 먹거나 조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 지역에는 인가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없다. 일부 민간단체(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노인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급식의 제한으로 인해 노숙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 현재 노숙인을 대상으로 급식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급식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2) 노숙인 일자리 확충, 주거지원 확대, 생계지원 확대

노숙인은 사회적 재난의 가장 빠른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숙인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의 문제보다 일자리 축소에서 주거와 생계로 이어지는 문제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노숙인의 삶의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해진 것으로 사

료된다. 노숙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비노숙인 집단과 동일했으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인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일부 노숙인들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의 위협, 주거상실의 위협, 생계의 위협, 노숙의 문제에 처한 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3) 노숙인의 심리지원 서비스의 제공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노숙인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노숙인들은 비노숙인에 비해 노숙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노숙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더 증가시킨 요인이 되었다. 노숙인시설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심리지원 전문가 등 전문요원을 배치하거나 지역 정신보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치료, 심리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심리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노숙인시설 서비스 개선

1) 시설 환경의 개선

노숙인 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코로나19 이후 시설 내 격리공간을 설치해야 했지만, 격리시설의 기준에 맞는 안정적인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재활시설 1개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을 제외한 노숙인 시설의 여건상 독립적이고 쾌적한 격리 공간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했다. 대부분 노숙인 시설은 노후하고 협소하며, 재활시설을 제외하고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 개보수 및 시설보강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시보호센터의 경우 수십명이 한 방에서 지내야 하는 집단수용의 구조로 되어 있어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도 쾌적성과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생활자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공간, 적절한 규모의 공동생활 공간, 노후한 환경의 개보수, 시설 안전보강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2) 시설 실무자 업무부담의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의 확충

코로나19 이후 노숙인 시설 실무자들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용자·생활자에 대한 관리의 강화 및 방역업무의 증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실무자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다고 응답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력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노숙인 시설에 적절한 인력의 확충은 노숙인복지 서비스의 총량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코로나19 이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설과 대상자 모두에게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제한되거나 중지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또는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인회·정근식·신명호 편저(2012).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남기철. 노숙인과 사회복지 실천(2007). 한국학술정보[주].
- 임덕영·이태진·정연·송이영·유야마 아쓰시·이봉조·홍성운(2020).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지현·이아름(2016)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대전복지재단.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2022). 보건복지부
- 대전광역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언론, 뉴스

1. 김정섭,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노숙인이라는 흉터” 금강일보, 2020년 8월 18일
2. 임병안, “집 없는 노숙인 자가격리 쉼터 어디에... 시간싸움 ‘째깍째깍’”중도일보, 2022년 2월 25일
3. 임병안, “코로나19 확진 노숙인 이틀간 다리밑 생활 방치... 생치센터 입소 늦어져” 중도일보, 2022년 3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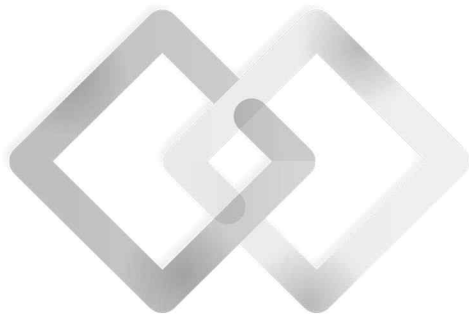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부록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노숙인·쫓방주민 당사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전지역 노숙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노숙인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기관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042-221-8331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조사참여에 동의합니다**

조사장소	① 거리 ② 일시보호시설 ③ 노숙인종합지원센터 ④ 노숙인재활시설 ⑤ 노숙인자활시설 ⑥ 기타 ()			
조사대상	성별	연령		

A. 코로나 19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문1.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상생활 거리두기, 손씻기, 일상적 마스크 쓰기, 청결유지, 체온체크, 사람 모인 곳이 가지 않기 등

문2.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 사람들과의 만남 자제, 스트레스, 건강상태 변화, 급식소 등 서비스의 제한 등

문3. [거리노숙 경험자]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강제퇴거, 소지품 압수, 기타 인권침해 사항

B. 의료 및 건강관리

문4.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유행 전후**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 참는다, 노숙인시설(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무료진료소, 의약품 구입, 보건소, 병의원, 노숙인지정병원 등

문5.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몸이 아플 때 병원진료가 필요하지만 진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예) 병원비, 코로나19의 전염 걱정, 진료 중단 및 거부, 기타

C. 코로나 19 경험

문6.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증상이 있는 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다? 또는 도움을 받은 기관이 있으십니까?
예) 증상 내용, 대처 내용, 도움받은 기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 등

문7.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접종 및 검사 일자, 횟수 및 기관, 도움 받은 기관 등

문8.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하셨습니다?
예) 격리장소(격리장소의 환경 등) 및 기간, 도움 받은 기관 등

문9.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진단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예) 검사비용, 검사장소, 정보의 부족 등

문10.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에 감염된 적이 있으십니까? 감염 후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예)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관(관공서)으로부터의 지원의 내용 등

문11. 만약 귀하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주거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D. 정부지원(재난지원금 등)

문12.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셨습니까?

예) 수령하였다면 수령과정 수령형태(카드, 현금 등), 도움받은 기관 등, 수령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등

--

문13. 귀하께서 생각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개선점은?

예) 지원내용, 수령방법 등

--

문14.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외에 지원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지원 내용, 수령방법 등

--

E. 급식

문15.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전후로 식사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식사횟수, 식사장소(무료급식소 등) 등

시기	코로나 19 전	코로나 19 후
내용		

문16.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전후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유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예) 급식중단 등, 식사를 하지 못한 기간 등, 대처방법

--

F. 방역

문17.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와 관련한 방역물품이 충분하십니까? 초기와 현재를 구분하여 대답해주세요.

예) 수급의 어려움, 구하거나 지원받은 경위 및 기관, 지원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

시기	코로나 19 초기	현재
내용		

문18. 귀하께서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용품이 충분하십니까? 또한 필요한 방역용품이 있으십니까?

예) 마스크 1장을 사용하는 기간, 비축한 방역물품 등

--

G. 복지서비스

문19.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식소, 일시보호센터, 시설(노숙인재활시설, 자활시설), 종합지원센터, 진료소, 노숙인복지시설 외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제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상담, 의료, 고용지원, 편의시설이용, 응급잠자리,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등

문20.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정부(구.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급여신청, 자활사업참여, 주민등록복원 등

문21.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소득보조, 의료지원, 고용지원, 주거지원, 심리지원, 급식지원 등

문22. 기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대전지역 코로나19 노숙인시설 대응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전지역 노숙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노숙인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기관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042-221-8331

본 조사는 가능하면 시설 실무 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시설 개요

문1. 귀 시설의 유형은?

① 종합지원센터 ② 일시보호시설 ③ 자활시설 ④ 재활시설

문2. 작성하시는 분의 직책은?

① 시설장 ② 행정책임자 ③ 생활복지사 ④ 생활지도원 ⑤ 기타()

문3. 귀 시설의 정원과 현원, 이용자수, 근로자수는(2022년 8월말 기준) 은 각각 몇 명입니까?

자활·재활시설			이용시설		
시설 정원	2022년 8월말 현원	근로자수	최근 1년간 평균 이용인원	2022년 8월말 현재 이용인원	근로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문4.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입소자는 몇 명입니까? (2022년 8월말 현재)

질병 구분	질환자 수
1) 대사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명
2)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명
3)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명
4) 호흡기질환(폐결핵,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섬유증 등)	명
5) 간장질환(B/C형 간염, 알콜성간염, 간경화 등)	명
6) 신경계질환(간질, 치매, 파킨슨씨병 등)	명
7) 신장질환(만성신부전 등)	명
8) 암(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명
9) 기타()	

문5. 시설 내 보건 관련 종사자 수를 각각 기재해 주세요.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정규직)	의사(초탁의)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위생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6. 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실태를 기재해 주십시오.

계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	차상위	노숙인의료급여	비수급
명	명	명	명	명

B. 코로나 19 이후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 변화

문7. 코로나19 유행 이후 서비스를 중지 또는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서술 기재)

※ 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으로, 서비스의 변화가 없는 경우 ‘변화 없음’ 으로 작성해주시고, 제외하고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01) 신규입소 및 퇴소	
02) 외출,외박,면회	
03) 일반적인 상담	
04) 아웃리치(현장상담)	
05) 급식지원	
06) 의료서비스	
07) 정신보건서비스	
08) 주민등록 복원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지원	
09) 현물(옷, 신발, 생필품 등) 지원	
10) 편의시설 이용(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등)	
11) 고용지원(일자리연계 및 자활사업)	
12)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연계	
13) 실내 프로그램	
14) 실외 프로그램	
15) 주거지원사업	
16) 고위험군 위기관리사업	
17) 사례관리	
18) 기타()	

C. 코로나 19 관련

문8. 귀 시설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의 수는 얼마입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계	노숙인	실무자	계	노숙인	실무자	계	노숙인	실무자

문9. 귀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문 9-1로) ②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문 9-2로)

문9-1.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에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를 기재하여 주세요.

년도	대상	검사방법(장소)	검사주기
2020년	노숙인		
	실무자		
2021년	노숙인		
	실무자		
2022년 8월까지	노숙인		
	실무자		

문9-2.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문10. 귀 시설에서는 생활인/이용인 감염의심자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문11. 시설 생활인/이용인 감염의심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당사자 및 동행한 시설 종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대상	노숙인	동행한 종사자
조치내용		

문12. 시설 생활인/이용인의 코로나 검사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예-기관예산, 개인부담 등)

문13. 시설 생활인/이용인/종사자의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상	노숙인			종사자		
	2020	2021	2022 8월까지	2020	2021	2022 8월까지
건수						

문14.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① 시설 운영 중지 (____ 일) ② 동일집단(코호트)격리 (____ 일) ③ 시설 일제 소독 ④ 제한 급식(도시락 등) ⑤ 생활자 건강 검진 ⑥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 공간 분리 ⑦ 대체 인력 확보	⑧ 전원 코로나 19 검사 ⑨ 이용자/생활인 타 복지시설로 전원 ⑩ 이용자/생활인 임시주거지원 ⑪ 이용자/생활인 자가격리시설로 전원 ⑫ 종사자 자가격리 ⑬ 기타 (____)
--	---

문15. 코로나19 이후 귀 시설에서 실시한 일상적인 대응조치는?

①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⑥ 마스크 등 감염예방 물품의 비치 및 제공
② 방문자 등 명단 작성	⑦ 발열, 호흡기 증상의 주기적인 점검
③ 시설 소독, 공기정화 등	⑧ 주기적인 코로나 19 검사
④ 비상연락체계 구축(시도-보건서-의료기관 등)	⑨ 격리공간의 설치
⑤ 홍보물의 부착	⑩ 기타()

문16.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용 공간(수면실, 휴게실, 식당 등)에 방역관련 시설 등 시행한 조치가 있습니까? 또한 외부지원을 받아 조치하였으면 기재해 주세요(서술 기재)

구분	조치 내용	외부 지원여부
수면실		
휴게실		
식당(조리실)		
기타		

문17. 귀 시설은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 격리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 22-1)로 이동. ② 없다(문 22-2로 이동)

문17-1. 격리 공간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격리 공간	특징
실외 / 실내	① 건물 내 방 ② 건물 외 컨테이너나 텐트 ③ 기타()
화장실	① 독립된 화장실 ② 공동화장실 ③ 기타()
1인실 여부	① 1인실이다 ② 2인실 이상이다 ③ 기타()
환기	① 환기 가능 ② 환기 불가능
기타시설	
평상시 용도	

문17-2.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대안은 무엇입니까?

D. 재난지원금 등

문18. 귀 시설의 생활자 이용자 중 재난지원금 수령 인원은?

①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 명	수령 ()명
② 대전시 재난지원금	신청 () 명	수령 ()명

문19. 재난지원금 신청 후 받지 못하거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및 사례가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

문20.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물품 등 부족하였던 것은 무엇이며 현재에는 어떻습니까?

물품명	내용	
	코로나 발생 후(2020년, 2021년)	현재

E. 코로나 19 정책 및 지방정부의 대응

문21.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시설과 지방정부(구, 시)의 협조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구분	잘안됨	안됨	보통	비교적잘됨	잘됨
① 대전시와의 협조 체계	①	②	③	④	⑤
② 구청과의 협조 체계	①	②	③	④	⑤
③ 타 단체와의 협조 체계	①	②	③	④	⑤

문2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노숙인에 대한 지방정부(구, 시)의 대책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구분	잘안됨	안됨	보통	비교적잘됨	잘됨
① 대전시	①	②	③	④	⑤
② 구청	①	②	③	④	⑤

문23. 지방정부(시, 구)의 노숙인시설을 위한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문 23-1로) ② 그렇지 않다

문23-1. 지방정부(시, 구)의 노숙인시설을 위한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이 있었다면 유용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24. 기관 자체적인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대전지역 코로나19 노숙인시설 대응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
전지역 노숙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노숙인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기관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042-221-8331

본 조사는 가능하면 시설 실무 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시설개요

문1. 시설개요

1) 시설유형	① 노인무료급식소 ② 노숙인무료급식소 ③ 기타()							
2) 급식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	:	:	:	:	:	:	:
	점심	:	:	:	:	:	:	:
	저녁	:	:	:	:	:	:	:
3) 급식장소	① 실내 ② 실외(장소:)							
4) 외부지원	① 정부(%) ② 민간기관(%) ③개인후원(%) ④기타(%)							

문2. 귀 시설의 이용자수, 근로자(2022년 8월말 기준)는 각각 몇 명입니까?

급식인원			근로자		
코로나 유행 전	코로나 유행 후	현재	조리원	일반 근로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B. 코로나 19 이후 급식 서비스 제공 변화

문3.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급식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중단하였다면 그 기간 및 이유는?

회차	급식중단 기간	중단이유
1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2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3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문4. 코로나19 유행 전후 급식인원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습니까?

시기	코로나 유행 전 평균급식 인원	코로나 유행 후 평균급식 인원	현재
내용			

문5. 코로나19 유행 전후 급식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까?(예-조리실에서 도시락으로 등)

시기	코로나 유행 전	코로나 유행 후	현재
내용			

문6 급식서비스를 제외하고 귀 시설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코로나19 유행 전후 중지 또는 제한된 것이 있습니까?(예-빈찬제공 등)

시기	코로나 유행 전	코로나 유행 후	현재
내용			

문7. 코로나19 이후 귀 시설에서 실시한 일상적인 대응조치는?

①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② 방문자 등 명단 작성 ③ 시설 소독, 공기정화 등 ④ 비상연락체계 구축(시도-보건서-의료기관 등) ⑤ 홍보물의 부착	⑥ 마스크 등 감염예방 물품의 비치 및 제공 ⑦ 발열, 호흡기 증상의 주기적인 점검 ⑧ 주기적인 코로나 19 검사 ⑨ 기타()
--	--

문8. 코로나 19 이후 코로나 예방을 위해 급식 공간에 방역관련 시설 등 시행한 조치가 있습니까? 또한 외부지원을 받아 조치하였으면 기재해 주세요(서술 기재)

구분	조치 내용	외부 지원여부
조리실		
식당		
기타		

문9.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물품 등 부족하였던 것은 무엇이며 현재에는 어떻습니까?

물품명	내용	
	코로나 발생후(2020년, 2021년)	현재

문10.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시설과 지방정부(구, 시)의 협조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구분	잘안됨	안됨	보통	비교적잘됨	잘됨
① 대전시와의 협조 체계	①	②	③	④	⑤
② 구청과의 협조 체계	①	②	③	④	⑤
③ 타 단체와의 협조 체계	①	②	③	④	⑤

문1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노숙인에 대한 지방정부(구, 시)의 대책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구분	잘안됨	안됨	보통	비교적잘됨	잘됨
① 대전시	①	②	③	④	⑤
② 구청	①	②	③	④	⑤

문1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시, 구)의 노숙인 급식시설을 위한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 또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① 중앙정부(문 12-1로) ② 대전시청(문 12-2로) ③ 해당구청(문 12-3로) ④ 없었음

문12-1. 중앙정부의 대응 매뉴얼 또는 지침은 유용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12-2. 대전시청의 대응 매뉴얼 또는 지침은 유용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12-3. 대전시청의 대응 매뉴얼 또는 지침은 유용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13. 기관 자체적인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근무시간 증가	⑥ 지켜야 하는 지침 증가
② 업무량 증가	⑦ 기관 미래에 대한 불안감
③ 감염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⑧ 이용인과의 관계단절
④ 이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⑨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⑤ 물품 부족에 대한 우려	⑩ 기타 ()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물품지원 (생필품)	⑤ 생활지원 관련 인력 확충
② 물품지원 (마스크 등 보건물품관련)	⑥ 추가 근무비 지원
③ 방역 및 소독 추가지원	⑦ 비대면 급식 서비스 개발 지원
④ 보건 관련 인력 확충	⑧ 기타 ()

--

<기타 의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2-6]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노숙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발 행 일 : 2022년 12월

발 행 인 : 김 인 식

발 행 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우:34917)

전 화 : 042-331-8901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aejeon.pass.or.kr>

인 쇄 처 : ㈜유선애드플랜

ISBN 979-11-92238-12-8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